

세대주의 바로 알기

지은이 / 젤러(G. Zeller)

옮긴이 / 정동수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세대주의 바로 알기

지은이 / 젤러(George Zeller)

옮긴이 / 정동수

1판 1쇄 / 2025년 5월 16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정가 : 8,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Shedding Light
on
Dispensationalism

— G. Zeller —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케스티 에디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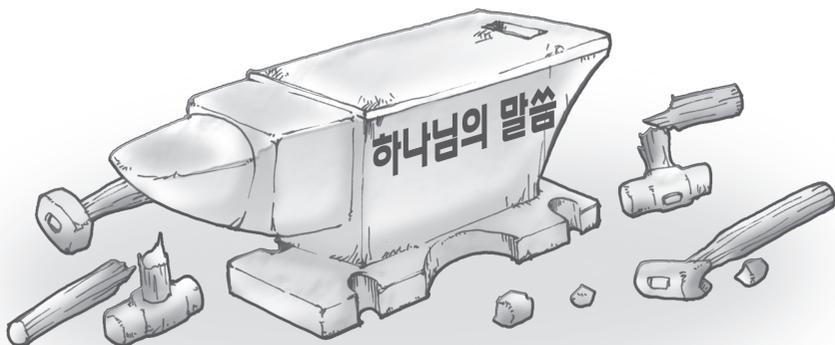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목 차



세대주의 바로 알기

역자 서문	6
제1장 세대주의 바로 알기	11
제2장 세대주의는 무엇인가?	29
제3장 세대주의자는 누구인가?	47
제4장 무죄 경륜	57
제5장 양심 경륜	63
제6장 인간 정부 경륜	71
제7장 약속 경륜	79
제8장 율법 경륜	87
제9장 율법의 역할과 목적	95
제10장 은혜 경륜	103
제11장 교회	113
제12장 환난기	125
제13장 왕국 경륜	134
제14장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145
제15장 세대주의 요약	154

부 록

성경 연대기	158
구원의 원리	165

이 책에 있는 선도들을 포함하여 130여 개의 컬러 지도 및 선도를 담은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 PDF 파일을 옆의 QR 코드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설교 및 강해 노트 6,000여 쪽 PDF 파일과 MP3 설교 등도 옆의 QR 코드 링크에서 역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역자 서문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힘써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리 같은 것은 성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교리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며 이성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때가 올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이미 경고해 주었습니다(딤후4:3-4).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빈야드 운동, 브라운스빌 부흥 및 펜사콜라 부흥 등의 거짓 부흥 운동이 기독교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또한 프라미스 키퍼(아버지 학교), 알파 코스, G12 등의 기독교 운동이 심리학을 동원하여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또 산불처럼 번지면서 성도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와 같이 영해(靈解) 즉 비유 해석으로 성경을 푸는 목사나 단체가 매우 많습니다. 비유 해석을 취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동일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셨을까요?

독자께서는 유명한 작가의 글을 읽을 때 비유로 읽습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읽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친서를 주시면서 거기에 적힌 그대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읽고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기록되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통을 따라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경륜주의’(Dispensationalism) 혹은 ‘세대주의’라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지금까지 몇 세대가 있었고 앞으로 몇 세대가 있을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체계이며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자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에 근간을 둔 세대주의라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일시에 모두 주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다윗에게는 더 많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대주의는 결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불변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걸쳐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세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 교회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을 깨닫지 못하면 재림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세대주의가 오해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수의 신학교와 교회들이 비유 해석을 중시하는 언약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디 독자들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기서 제시되는 논거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 저와 여러분의 최종 권위입니다.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세대주의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젤러(Gorge Zeller)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대주의에 대한 총괄적인 입문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삽화들은 김재욱 형제님이 그려 주었습니다.

「세대주의 바로 알기」, 이 책은 21세기를 맞으며 말씀의 기근을 만난 성도 여러분의 영적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 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화평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0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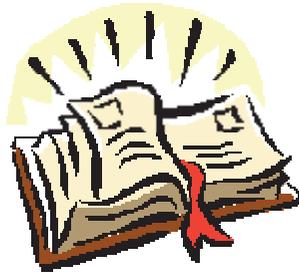
인천에서
정동수

•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세대주의 바로 알기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Study to she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2 Tim. 2:15).



세대주의 바로 알기

세대주의 개관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외 없이 ‘세대주의’란 말을 언급하기만 하면 대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대주의란 말은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의 사역과 저술 등이 자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복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려는 흥미를 처음으로 일깨워 준 성경 회의나 예언 집회 혹은 특별한 모임 등을 회상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세대주의란 말을 마치 재앙과 같이 여기고 이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들었다 하더라도 대개는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세대주의의 가르침이 야말로 이단 가르침이라는 말도 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의 가르침 역시 조직화 과정과 발전 과정을 겪어 왔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는 기본 특징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대주의는 여러 차례 외부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 왔으며 서투른 모방과 판에 박힌 비난 등은 세대주의의 관점을 제대로 보여 주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세대주의의 관점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장로교가 주축인 국내에서는 처음에 세대주의가 도입되어 종말론에서 표준이 되었으나 날이 가면서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면서 장로교는 고전적인 언약주의로 회귀하게 되었고 지금 웬만한 신학교에서는 세대주의를 ‘이단 교리’ 혹은 ‘준 이단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교회가 신학적/목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시한부 종말론 때문일 것입니다. 국내에는 우리 주위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의 해석학적 뿌리가 고전적인 세대주의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정도 이 견해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에는 크게 ‘신비주의적 종말관’과 ‘세대주의적 종말관’이 있으며 이 둘이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펄시 콜레, 이장립 등이 주장하는 것은 신비주의적 종말론이며 헬 린제이, 콜린 데일, 찰스 라일리 등의 종말관은 세대주의적 종말관입니다. 전자의 문제는 세대주의의 어떤 틀을 유지하는 듯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직통 계시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적 시한부 종말론은 진정한 의미의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다릅니다. 미국의 정상적인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한국의 신비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직통 계시를 믿고 생업을 버린 채 공동생활을

하며 흰옷을 입고 자정에 휴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침례교가 주축인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출간된 「스코필드 주석성경」(*Scotfield Reference Bible*)의 영향으로 건전한 세대주의가 거의 모든 신자들의 신학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화당 체제든 민주당 체제든 계속해서 중동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근본 이유는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세대주의 신학이 알게 모르게 확고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권위가 있고 학구적이라는 신학교들 - 예를 들어 델러스, 탈봇, 무디, 그레이스, 펜사콜라¹⁾ 및 대부분의 침례교 신학교들 - 은 모두 건전한 세대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세대주의는 결코 이단이 아니며 서구에서 언약주의(칼빈주의)와 함께 신학의 골격을 이룬 건전한 신학 체계입니다.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나 신학자라면 누구나 이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경 해석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느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같은 성경 말씀이 달리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한 성경 해석 체계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다만 끝 날에 이루어질 부분, 즉 종말론에서 성경 해석 방법의 차이로 인해 양 진영이 대립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천년 왕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언약주의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천년 왕국은 없으며 그것을 영구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에서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달리 보므로 에스겔서 40-48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언약주의적 해석입니다.²⁾

에스겔 47장: 여기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큰 강이 되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나타난다(5절). 그리고 강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무가 심히 많고 강이 도달하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며 바닷물(사해)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한다(9절).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1)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에는 러크만이 운영하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Pensacola Bible Institute, PBI, www.kjv1611.org)과 호르튼이 총장으로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교(Pensacola Christian College, PCC, www.pcci.edu)가 있다. 국내에는 러크만의 영향을 받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PBI를 가장 좋은 학교인 것으로 소개하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PBI는 러크만의 교회에서 밤에 모이는 야간 신학교에 불과하다. 물론 야간 신학교라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PBI가 가르치는 극단적 세대주의는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누구라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과 그들의 교리의 창시자 러크만을 잘 알 수 있다. 반면에 PCC는 미국 내 보수주의를 이끌고 있는, 5,000여 명의 학생이 있는 크리스천 종합 대학이다. PCC에서 발행되는 홈스쿨링 교재인 '아베카북'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크리스천 교과서이다.

2) 이 글은 <http://blog.daum.net/11christ/10411012>에서 취했으며 저자는 김정우로 되어 있다.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해까지 적시며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할까? 이 예언의 배후에는 명백하게 에덴동산 이미지가 깔려 있음을 주목하라. 에덴동산에 흐르는 물과 모든 나무와 산의 모티프가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요7:38)고 말씀하심으로 에덴동산을 성령 강림으로 재해석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며 강의 왼쪽과 오른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종류의 실과를 맺는다고 한다. 즉 에스겔의 상징적인 강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은 에덴동산의 회복을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지 문자 그대로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다.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가 예표적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를 본 딴 복사판이다(출 25:40; 왕상8:29-30).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로서(히8:5)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졌다. 이 모형은 그림자로서 솔로몬의 돌 성전은 보다 완전한 것이 나올 때 폐기될 수 있었다(히10:9). 이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실체가 나타나고(요1:14)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계22). 이 성경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에스겔서의 강물과 나무 이미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처럼 언약주의자들은 종말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해합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 돌아와서 땅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사해를 살리며 모든 지역을 옥토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제 동일한 장로교 저자가 스가랴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언: 메릴 언거(Unger, 1978)는 스가랴서 전체가 메시아의 강림과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는 관점 속에서 주석을 하고 있다. 예로서 2장 1-13절의 측량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은 ‘그 도시가 미래에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즉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될 수 없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받는 환상(3:1-10)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그리고 있다(55쪽). 11장은 미래에 거짓 목자, 즉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하며 12장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다고 말한다(206쪽). 미래의 예루살렘이 다시 이방인들에게 포위될 것이며(12:1-9) 메시아 왕이 두 번째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12:1-13:9).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승리를 거둘 것이나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산이 변형되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14장). 따라서 14장은 전적으로 예언적이다(wholly prophetic).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과거 역사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238쪽). “스가랴 14장은 현시대의 관점에서도 전적으로 예언적이다.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석법은 문자적인 해석이다”(239쪽). 그리고 언거는 파인버거를 인용하고 있다: “이 장이 문자적으로 해석될 때 스가랴가 지금까지 계시한 것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완성에 대한 예언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감람산이 나누어지고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이미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엘이 말세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일하시는 시대를

예언하면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았을까?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도래에 대해 상징과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상징과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선지자의 의미를 바로 캐어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목시 문학이라는 장르를 결정하는 것이 종말과 연관된 본문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준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서 꿈과 환상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을 이기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에 개입하시며 그의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다. 목시 문학은 구체적인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종말론적인 최후의 승리를 제시하며 고난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한다. 신자들이 고난받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징(symbolism)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언약주의의 요점은 구약이나 신약의 예언 부분과 이스라엘 관련 부분을 모두 상징을 통해 비유적 표현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성경 해석 체계와 믿음을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진지한 크리스천임을 인정하면서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관한 한 그들의 진지함을 따르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습니다. 즉 그들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 사해를 회복시키며 재림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셔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는 것은 곧 사도행전 1장 11-12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즉 올리브산에서 승천한 그대로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봅니다. 언약주의자들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의로 무시하고 영해하여 모두 교회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

사람이 조직적으로 만든 교리나 이론에는 언제나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역시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은 세대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언약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이 책을 전개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 세대주의는 최근에 생긴 교리로서 역사성이 없다³⁾

하나의 신학 체계로서의 세대주의의 기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대주의자들도 대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대주의라는 신학으로 체계화된 초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현대 세대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의 저술을 살펴보면 세대주의적 개념이 바로 그들의 관점의 일부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많습니다.

마티(Justine Martyr, 주후 110-165)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한 의를 가르치셨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분명히 세대주의적인 개념들을

3) 역사성 부분은 라이리(C. Ryrie)가 지은 「오늘날의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Today*, 1999, Moody Press)에서 발췌하였다.

보여 주었습니다.

이레니우스(Irenaeus, 주후 130-200)는 신약 성경 안에 네 복음서밖에 없는 이유들을 기록하면서 세대주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주후 150-220)는 모세 세대뿐만 아니라 세 개의 족장 세대(아담, 노아, 아브라함)를 구분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라. 그러면 성경은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주장한 어거스틴도 자신의 저작에서 세대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희생 법규의 제정은 이전 시대에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하나님께서 현시대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각 시대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보다 무한히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 더하시든 빼시든, 폐하시든 세우시든, 줄이시든 늘이시든 지 상관없이 그분은 변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불변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여정을 통해 아름다움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사건을 명령하신다. 또한 이러한 시간의 일부인 세대들은 각각의 연속되는 시대에 잘 맞게 되어 있으며 형언할 수 없이 슬기로운 음악가가 지은 노래의 웅장한 멜로디처럼 끝이 나게 될 것이다. … 비록 세상 역사의 이전 시대의 한 기간에 그분께서 한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시고 그다음 기간에는 다른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다. 사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면서 연속되는 시대들의 변화들과 조화를 이루는 참된 종교, 즉 찬송받기에 합당한 참된 종교의 교리에 속한 상징적 행동들을 명령하신 것이다.

한 역사가는 피오레의 요아킴(Joachim, 주후 1135-1202)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세 시대 역사 이론, 즉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영과 의의 미래 시대로 나누는 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미국 및 영국의 예언 저술가들이 퍼뜨린 세대주의의 원시적 형태인데 이 세대주의 역시 인류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계들, 즉 세대들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사도 요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하여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으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원시의 혹은 초기의 세대주의적 개념들을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 개혁 이후에 이르기까지는 훗날 세대주의로 체계화된 개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 개혁의 중요한 교리적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야 비로소 신학자들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포와르(Pierre Poiret, 주후 1646-1729)는 프랑스의 신비주의 철학자로서 1687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자신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경륜」(*L'Oeconomie Divine*)을 처음 출간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예정론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뒤에는 하나의 완성된 조직 신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특별한 경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J. Edwards, 주후 1639-1716)⁴⁾는 영국 국교회의 칼빈주의 목사로서 1699년에 「모든 시대들의 전체 역사 혹은 개관」(*A Complete History or Survey of All the Dispensations*)이란 제목의 790페이지에 달하는 긴 책을 두 권으로 나누어 출간했습

4) 이 사람은 미국의 청교도 목사로 대각성 운동의 촉매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와는 다른 사람이다.

니다. 그의 저술 목적은 '창조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종교의 여러 가지 방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의 이행을 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역시 세대주의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작시자로 잘 알려진 와츠(I. Watts, 주후 1674-1748)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정해 주신 모든 종교와 그들을 향한 그분의 모든 세대의 조화」라는 제목의 40페이지 논고에서 세대들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자신의 세대주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세대주의적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죄 세대 혹은 처음의 아담의 신앙
2. 은혜 언약의 아담 세대 혹은 타락 뒤의 아담의 신앙
3. 노아 세대 혹은 노아의 신앙
4. 아브라함 세대 혹은 아브라함의 신앙
5. 모세 세대 혹은 유대교 신앙
6. 기독교 세대

천년 왕국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그의 체계는 현시대 세대주의자들의 체계와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가 세대주의를 체계화하고 촉진하였지만 다비나 그가 속한 형제교회가 세대주의 체계에 내포된 개념들을 스스로 창안해 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의 체계를 세웠을 뿐입니다. 다비는 성경 번역을 포함해서 권당 600여 페이지 분량의 책 40여 권을 지었는데 그의 작품들은 성경 언어 및 철학과 교회사 등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을 잘 보여 줍니다.

1900년대 이후로 스코필드(C. I. Scofield) 등이 전통적 의미의 세대주의를 확립하였는데 그의 체계는 다비의 체계와 달랐습니다. 스코필드의 체계는 와츠의 체계와 비슷하며 다비의 체계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가 다비에서 시작되어 스코필드에 의해 전수되고 대중화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세대주의의 개념이 주후 100년경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적 의미의 세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정착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으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들이 종말론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교회들이 종말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종말론과 관련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도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순으로 볼 때 교리적 논의는 변증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종말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직적인 종말론이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체계적인 세대주의가 비교적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결코 종말론이나 원시적 형태의 세대주의가 종교 개혁 이전 시대에는 검토되지 않았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영역에서 교리의 체계적 발전이 그때까지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의 발전 도상의 현대 시기에서 종말론에 대한 연구 노력으로 인해 세대주의의 특징들이라는 좋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세대주의 개념들은 다비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이미 가르쳐졌다.
- (2) 종말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대주의가 최근에 와서야 세밀히 검토되고 체계화된 것은 단지 종말론이란 신학 영역 자체가 최근에야 비로소 제대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 즉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역사성이 없다는 주장으로부터 얻게 되는 결론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판결이 최종 권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모든 교리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계시라는 빛을 통해 시험해야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를 반대하는 이들은 세대주의가 예수회의 회원인 입마누엘 라쿤자가 만들었으므로 이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라쿤자가 7년 환난설의 주장자라고 말하며 천주교회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혹은 기독교에 잘못된 교리 -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천주교 누룩 - 를 넣기 위해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천주교를 싫어하는 아일랜드의 개신교도들이 만들어 낸 이론입니다. 이들은 “천주교가 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는 허수아비 이론을 가져다가 천주교에 반감을 가진 이들에게 주입하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가 삼위일체를 믿고 주장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환난기 역시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난기를 믿으면 천주교의 예수회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시된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역사의 판결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임을 믿으며 또한 이런 문제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음을 믿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가는 성경이 평범하게 밝혀 줄 것입니다.

- B. 세대주의는 인위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나누어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유대인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마지막 세대요 일곱째 세대인 ‘천년 왕국 시대’를 부각한다

뒤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세대주의에서 ‘세대’(Dispensation)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 혹은 경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보다는 경륜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 체계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거기에서 파생되어 한 경영 체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우리말로 ‘세대’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영 체계(세대)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법을 바꾸신다.
2.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상응하는 계시가 필요하다.
3. 사람 편에서도 상응하는 반응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특징들 외에도 세대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부차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 개의 경영 체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경영 체계는 이러한 부차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시험 -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
2. 책임/반응하기 위한 믿음
3. 사람의 실패
4. 심판 -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여 주는 것

이런 면에서 세대주의를 들여다보면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영 체계들과 이것들로 인한 시대들을 바르게 구분하고 성경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데 있지, 결코 세대가 몇 개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세대를 나누는 방법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라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인정하므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며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또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안식하며 더 이상 인간 제사장 체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다음과 같이 다섯 개로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1. 아담의 타락 이전
2.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까지(짐승의 희생)
3. 율법 -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4. 은혜 - 그리스도부터 현시대
5. 천년 왕국

위의 다섯 개 경영 체계 혹은 세대는 누구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이러한 경영 체계의 앞뒤로 확연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결코 시대에 따라 구원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편 이 외에도 위의 둘째 기간인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다른 경영 체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둘째 경영 체계는 좀 더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2.1 아담의 타락에서 노아까지 -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 경영 체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

2.2 노아부터 바벨탑까지 -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민족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는 일이 시작되었으므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2.3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 나오면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아마도 스코필드 이후의 근대적 세대주의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곱 개의 경영 체계/세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 일곱 개 중 앞의 여섯 개는 주후 1700년경에 와츠가 제안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일곱 개 외에도 어떤 분들은 7년 환난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다른 경영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경영 체계는 모두 아홉 개가 됩니다.

이렇듯 세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대의 수에 대해서는 두 개에서부터 아홉 개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인류 역사에서 일곱 개의 경영 체계만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성경에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들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채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친다

뒤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이것은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⁵⁾ 이들은 대개 구약 시대와 환난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천년 왕국 시대에는 믿음이 필요 없고 단지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나누다가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곧 영생은 창조물이 창조자로부터 거저 얻는 것이지 자기 행위를 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거저 주십니다. 사람의 삶에서 햇빛, 물, 공기같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다 거저 주어집니다.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만 사람이 돈을 주고 사거나 힘을 들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공기나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영생을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이단 교리이며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이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거저 얻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들은 다 이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주의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갈1:8-9).

5) 이것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러크만과 그의 추종자들을 들 수 있다.

세대주의의 이점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이점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바르게 연구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18장 21-24절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내 모든 법규들을 지키며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범법들,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기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 가운데서,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많은 이들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여 설교하며 이런 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구원받은 뒤에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교리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모든 구절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의 문맥은 모세의 율법이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사람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갈3:24).

또한 창세기 4장 9-12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9장 6절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과 다른 경영 체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변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나 성결교같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선호하는 교회들은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용해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양에 속한 자들에게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마25:35-36)

문맥에 상관없이 이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에베소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문맥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되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마24:3)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할 대환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에'(then)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즉 열 처녀 비유는 세상 끝에 하늘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려는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 역시 이스라엘과 관계된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며 여기서 양에 속한 것으로 판명난 자들은 육체를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6-43절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결코 행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양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마태복음 7장 15-23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 즉 믿음이 있으면 -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 즉 믿음이 없으면 -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모두 불 속에 들어갑니다(마7:18). 물론 이것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바로 그 위에 1-8절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무 때나 칼을 사용하라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칼을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눅22:36).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이 경고하는 바는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벌이는 전쟁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0장 5-6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가면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을 향한 왕국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나올 때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입니다(고전15:1-4).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의 시작부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대하던 '하늘의 왕국', 즉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마3:2; 4:17). 물론 마태복음 10장도 같은 문맥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니 회개하고 왕국을 받으라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국은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7-3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말기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유기체인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교회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21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뒤부터 우리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죽고 묻히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국을 기다리던 유대인 베드로는 22절에서 즉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그러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간/세상 경영 체계를 바꾸려 하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일에 참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바꿉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구원의 방법이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즉 구약의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한 ‘하늘에서 임하는 왕국’은 연기되고 교회라는 새로운 유기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온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국인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엡2:11-12)

그러나 교회의 출생 이후에는 인류가 셋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고전10:32)

경륜주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것을 바르게 보고 문맥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누구라도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며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와 또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은 대부분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자기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경륜의 제사장(사제, 신부), 성전(성당), 촛불, 물 뿌리는 것, 향 피우는 것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개신교 형제들은 1500-1600년경에 로마 천주교를 떠나면서 그들의 오류들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고 교회를 택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들도 천주교회와 비슷하게 구약처럼 예식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할례가 성도들의 유아 세례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촛불과 향, 예전을 중시합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등도 구약의 이스라엘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하여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음식 규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류들의 문제는 한결같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자기들을 동일시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배척하고 죽인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맞아들일 때가 있음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슁 12:10).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신명기 28장 15-68절에 있는 불순종의 저주를 받고 있지만 그분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유대인들]이 너희[교회]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 [유대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롬11:28-29).

사무엘기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1. 다윗의 가족을 통한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삼하7:10)
2. 다윗의 왕좌가 그의 씨를 통해 영원히 확립되는 것(삼하7:13)
3. 죄로 인한 형벌은 있으나 약속의 취소는 없다는 것(삼하7:14-15)
4. 다윗의 집과 왕국을 영원히 확립하는 것(삼하7:16)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왕좌를 상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마 1:1) 이에 그분은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과 왕좌를 세우실 것입니다(사9:6-7).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29절은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옅으로 치워 놓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그들을 그들의 고토에 회복시키고 자신의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이룰 것을 보여 줍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어거스틴 사상과 그것을 이어 받은 칼빈주의에 빠져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에 다음과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1.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된다(슁10:6-12).
2. 이스라엘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 3분의 2가 죽고 오직 3분의 1만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슁13:8-9). 우리 주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대환난이라고 말한다(마24:21).
3.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다(슁12:10-13:1).
4. 메시아가 재림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에서 치리하신다(슁 14:1-21).

세대주의의 위험

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가 성경을 바로 보게 해 주는 좋은 틀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이 체계를 너무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이

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기본이 되는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세대에서는 믿음 외에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이 체계 전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며 미국의 대부분의 세대주의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몇몇 과격한 이론들로 인해 어떤 신학 체계 전체를 나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다음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인한 위험성과 그것에 대한 반론 및 해결책을 보여 줍니다.

A.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성경 신자들이 한 형태의 고정화된 특정 방식의 세대주의 교리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에는 물론 여러 개의 경륜이 있지만 성경 신자들이 한결같이 모두 어떤 사람의 특정 방식만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러크만(Peter S. Ruckman)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세대주의를 믿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단 교리를 믿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경륜주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경에 몇 개의 경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모든 조직 신학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비교해서 시험해야 합니다(행17:11; 고전14:29; 살전5:21).

스코필드(C. I. Scofield), 라킨(Clarence Larkin), 웨이퍼(Lewis Sperry Chafer) 같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스코필드와 라킨은 그 시대의 신학을 반영하며 창세기의 재창조⁶⁾를 믿었습니다. 러크만 같은 사람들은 이들의 신학에 ‘믿음 더하기 행위’라는 구원 방식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여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러크만이 운영하는 미국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출신들은 한결같이 구원 방식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킵니다.⁷⁾

한편 최근에는 미국 델러스 신학교의 라이리(Charles Ryrie), 월브우드(John F. Walvoord), 펜테코스트(Dwight Pentecost) 등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모든 경륜을 통해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경륜주의 체계를 채택한다 해도 이스라엘과 교회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현시대에서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서

6)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오랜 기간이 존재하며 그 기간에 땅이 이미 한 번 멸절되었고 3절부터 나오는 창조 기사는 첫 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다가 멸망한 옛 땅을 다시 창조하는 것(재창조)을 기술한 것이라는 믿음이다. 20세기 초에 진화론의 공세에 몰린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은 스코필드 등의 재창조 해석에 의지하여 창조와 진화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고 시도하였고 이 믿음은 오랫동안 많은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의심 없이 수용되고 공유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창조론을 지지하는 성경 과학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구와 우주의 형성 연대가 성경 기사 그대로 6,000여 년 정도임을 보이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근본주의 학교에서 재창조가 아닌 창조를 믿고 가르치며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러크만 추종자들은 대개 재창조를 믿음의 기초로 생각하고 있다.

7) 한국에서는 이송오씨가 대표로 있는 말씀보존학회가 러크만주의를 그대로 답습하여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숨겨 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 B.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경륜을 나누고 성경의 모든 구절을 조각조각내고 만다

이런 체계는 흔히 ‘급진적 과격한 세대주의’(Hyper-dispensationalism)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등을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구분하고 조각냅니다. 여기에는 벌링거(E. W. Bullinger), 스태(Cornelius Stam)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니다.

- (1) 사복음서는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선포한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히2:3-4). 비록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복음서와 서신서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차이가 없음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에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 (2)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계시된 것들과 다르며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수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서신 등은 신약 시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복수)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엡2:20).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며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지 않습니다(벧후3:1-2, 15-16).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근에 스토퍼(Douglas Stauffer)는 러크만의 교리를 토대로 지은 자신의 책 『One Book Rightly Divided: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Bible』(2000, McCowen Mills Publisher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바울만 교회의 대변인이다(17쪽).
2.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환난기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20, 27쪽).
3. 환난기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23쪽).
4.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지 않는다(23, 29쪽).
5.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26쪽).
6.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29쪽).
7. 요한일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56쪽).
8.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였다(175쪽).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론과 관련해서 ‘믿음 더하기 행위’ 공식을 주장하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같은 일반 서신들을 교회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보여도 그런 것은 다 불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C.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륜과 경륜 사이에 변천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는 한 경륜에서 다른 경륜으로 바뀌는 변천기 역사를 기록하므로 사복음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마2:2; 눅2:25-39)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시며(마16:18) 마지막 28장에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마태복음의 대상을 이스라엘로만 한정하면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것이 현시대 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현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며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펼쳐지는 그 내용은 거의 유대인들의 예언 성취를 다룹니다. 또한 타 언어(방언)의 은사 역시 이스라엘을 위한 증거입니다(고전14:21-22).

한편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서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 24-28절의 아볼로와 19장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았고 아직 신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신약의 교리, 즉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는 시기에 살았습니다.

D.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현시대와 상관이 없다고 믿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 혹은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 등을 이런 부류의 책으로 여기고 읽지 않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서 현시대 크리스천들을 향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롬15:4; 고전10:6, 11).

E.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글자로 대하므로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

이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세세히 글자로만 대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교훈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바리새인들이 범한 것과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즉 경륜을 바로 나누어서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하지만 영을 무시하기 때문에 권능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글자로 성경기록을 주시고 경륜에 따라 바르게 성경을 보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성경기록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데 이런 사람들은 글자만 논하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놓칩니다. 그들의 영적 생활은 말 그대로 피폐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적 교만으로 인해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분리하여 홀로서기를 하려 하므로 국내외에서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로 인해 성경 신자들에

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

이 책에서 우리는 경륜주의(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의도를 시대를 따라 펼쳐 나가시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하려 합니다. 독자께서 부디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성경 공부의 눈을 열어 준 이 신학 체계의 특징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롬15:4).

세대주의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통해 세대주의의 특징들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신학 체계도 완전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제시하는 세대주의 내용들이 완벽하여 이것들로 성경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감히 믿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경 해석 체계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줄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리들을 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¹⁾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세대주의 신학 체계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여러 개의 기간으로 나눕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나누어 생각하고 설명하는 ‘고전적인 세대주의 체계’입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그와 같은 고전적인 세대주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완벽한 체계가 아닙니다. 세대주의에서 경륜은 꼭 일곱 개만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섯 개, 아홉 개 등 여러 개의 경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륜의 개수에 상관없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한다는 세대주의의 본질은 동일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경륜들’(dispensations) 혹은 ‘세대들’에 관해 공부할 것입니다.²⁾ ‘경륜’은 중요한 단어이기에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경륜’ 자체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이점 인식

하나님은 변치 않고 동일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본래

1) 이 교제는 미국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성경교회의 젤러(George Zeller)가 파슨스 목사의 도움을 얻어 만든 것이다. www.MiddletonBibleChurch.org에 본문(Shedding Light on the Dispensationalism)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성경 공부에 필요한 고급 자료가 많이 있다.

2) 앞에서도 지적 했듯이 ‘dispensation’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경영 체계’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통 경륜이라고 부른다. 또한 한 경영 체계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여기서 세대 혹은 시대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경륜주의 신학 체계를 세대주의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는 경영 체계, 경륜, 세대 등을 혼용했고 또 경륜/세대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부디 독자께서는 원래 ‘dispensationalism’이라는 말이 ‘경륜주의’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분의 모습과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걸쳐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방식이 바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공활을 베푸사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영원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도 달랐습니다. 노아와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른 방식도 달랐습니다. 노아의 의무는 방주를 짓는 것이었고 수백 년 뒤 사람인 솔로몬의 의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되는 진리의 정도 차이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시에 모두 주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다윗에게는 더 많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마 13:17).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가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요16:12).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갈1:11-12; 엡3:3-5 참조).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죽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요한은 이것을 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계1:1-3, 9-12 등).

물론 이 같은 진리의 계시 방식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당신에게 필요한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한 번에 모든 진리를 알려 주십니까? 아니면 차츰차츰 알려 주십니까?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젓'이 필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단단한 음식과 고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고전3:1-2; 뱀전2:2). 초신자가 깊은 영적인 진리를 모두 받는다 해도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은 아직 기하학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하학은 나중에 배우고 먼저 더하기와 빼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성경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약 1,600년이라는 기간에 - 주전 1500년경에서 주후 100년까지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가 점진적으로 진보되는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교회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도 성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 심지어 복음서 한 권도 -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수 세기에 걸쳐 점진적이고도 진보적으로 계시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성경을 한 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아담: 제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성경 같은 것은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창 17:1; 18:1 등).

모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윗: 제 성경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기, 사사기 그리고 제가 기록한 시편들이었습니다.

에스라: 제게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 제가 소유했던 성경은 전체 구약 성경이며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바울: 저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저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모두 합쳐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성경에는 다윗 시대의 성경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명백한 차이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으며 사람들과 놀랍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경륜에 걸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엡2:8). 율법 이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창15:6)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롬4:3). 율법 시대에 살던 다윗도 그렇게 구원받았고(롬4:6) 신약 시대의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롬4:5)! 노아, 이사야, 베드로, 바울 등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값없이 부어 주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과 호의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세대주의는 결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은혜에 행위를 더해 구원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속에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시대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 혹은 각 시대를 경영하시는 -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에 갈 때 어린양을 가지고 갑니까? 어린양을 가지고 가서 당신의 죄로 인한 희생물로 그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까?(레3:7; 4:32; 삼상7:9 참조)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들처럼 짐승을 희생물로 드립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은 짐승을 희생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런 경우도 고려해 봅시다. 오늘날 토요일(일곱째 날)에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율법에는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까?(출35:2 참조) 실제로 토요일에 나뭇가지를 줍다가 죽은 예가 민수기 15장 32-36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불린 특별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입니다(벧전2:9; 계1:6).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부모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부모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유대인 사내아이의 부모에게 할례는 필수였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창17:10-14 참조)

아담이 살았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될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창2:16-17).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먹어서는 안 될 열매 곧 '금단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루신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 주일에 모였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까? 솔로몬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차이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시대에 속한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마다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7절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늘의 왕국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보면 부활 이후에 복음 선포 대상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도 때가 바뀌자 -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바뀌자 - 내용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경륜 전후의 차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각각의 시대마다 핵심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놀라운 변화와 차이를 일으켰습니다. 다음을 살펴봅시다.

- 사람의 타락(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 노아 시대의 대홍수
- 바벨탑 심판
- 아브라함을 부르심(창12)
- 율법 수여(출19-20)
-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 성령 강림(행2)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제 이 사건들 중 몇몇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어떤 차이가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A. 사람의 타락

타락

타락
이전



타락
이후



사람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7절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의 타락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까?(롬5:12 참조)

B. 노아의 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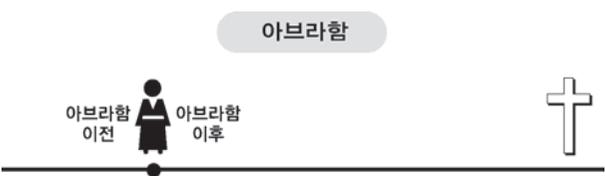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 같은 식물성 음식만을 먹었습니다(창1:29). 짐승도 역시 모두 채식을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창9:2-3). 그 이후로 지금은 사자 같은 짐승이 육식을 하지만 천년 왕국 시대가 되면 다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사11:6-9).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창4:15). 그러나 홍수 이후에 그분께서는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창9:6).

C.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창11:1). 그런데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언어의 혼잡이 생겼고 그 결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민족을 형성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창11:7-9). 바벨탑 사건 전에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민족을 형성하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민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들은 연대기적으로 창세기 11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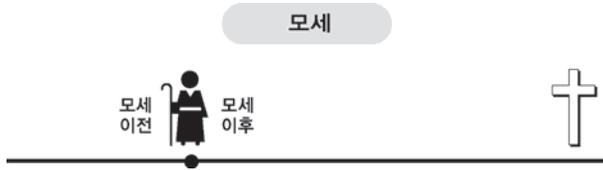
D. 아브라함을 부르심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불리는 한 그룹의 사람들만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할례라는 표적이 없었고 그것을 행하라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는 그것이 명령이요 표적이 되었습니다(롬4:9-12).

E. 모세의 율법



모세 이전에는 글로 기록된 명령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이후에는 글로 기록된 명령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명령에 의거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음식물에 관한 상세한 규례가 없었지만(레11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 안에 그러한 규례를 포함시키셨습니다.

F.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기서 생기는 차이점 중 몇몇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이전에서 십자가 이후로 옮겨가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즉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잠정적인 짐승의 희생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완전한 희생'으로 바뀌었습니다(히10:1-4). 제사장 체계 역시 아론의 제사장 체계에서 모든 성도의 제사장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이전에는 음식물 규정이 있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그런 것이 폐지되었습니다(딤후4:3-5). 이 외에 또 다른 변화나 차이점들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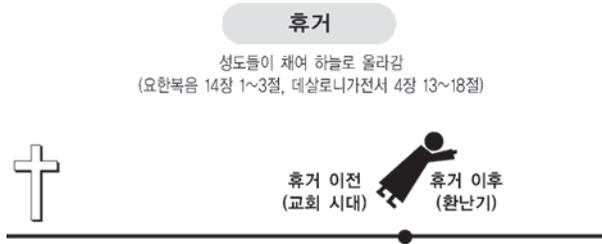
G. 성령 강림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나 오순절 이후에는 그분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요14:17). 오순절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그룹의 사람들만 이 세상에 존재했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사람이 유대인, 이방인, 교회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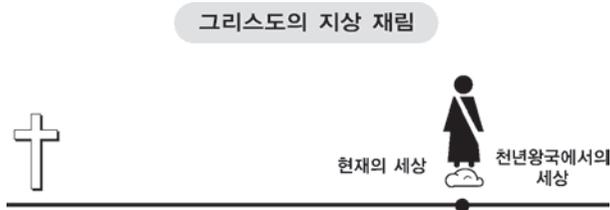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고전10:32). 오순절 이전에는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었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교회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H. 교회의 휴거



휴거 이전에는 교회, 유대인, 이방인의 세 그룹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휴거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이 땅에 남습니다. 휴거 이전에는 성령님이 자신의 성전인 성도들의 몸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고전3:16-17; 고전6:19-20). 그러나 휴거 이후에는 성령님이 여전히 이 땅에 계시지만 구약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안에 내주하지는 않습니다. 휴거 이후에 나오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며(살후2:4) 이것은 신자들로 구성된 영적 성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돌과 나무 등으로 건축된 실질적인 성전입니다.

I.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이 도래할 시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6:10). 그러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하늘의 왕국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왕국이 오게 될 때 세상은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를 인지할 것입니다.

가령, 왕국 시대에 사는 짐승들을 생각해 봅시다(사11:6-9). 그때가 되면 짐승들의 습성이 바뀝니다. 사자 같은 육식 짐승이 채식을 합니다. 현 세상에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마24:6-7). 그러나 천년 왕국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미4:3). 거기서는 다시 전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에 대해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막16:15 등). 그런데 과연 왕국 시대에도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이사야 11장 9절 등은 이런 일이 필요치 않음을 보여 줍니다. 스가랴 13장 3절을 보면 이때에 대언을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즉 대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대주의자³⁾란 성경을 믿고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 중요한 차이점들을 인식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처음에 등장했던 ‘경륜/세대’(dispensation)라는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경륜/세대의 뜻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 등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dispensation’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라틴어 별게이트 성경으로 옮기면서 사용한 ‘디스펜사티오’(dispensatio)라는 라틴어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말입니다. 이 라틴어 동사는 ‘무계를 달아서 나누다’ 혹은 ‘배분하다’란 뜻의 복합어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이 들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1. 나누어 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행정을 보거나 지휘를 하거나 혹은 관리를 하는 행위 혹은 물건들을 주거나 운영하는 체계
3. 어떤 요구 조건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분배해 주는 행위

이 단어의 용도를 신학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위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dispensation’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세대: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 특정한 민족이나 기간의 필요에 특별히 부응하는 단계... 또한 어떤 제제가 널리 보급된 시대나 기간.

스코필드(C. I. Scofield)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경륜에 대해 내린 정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 유명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경륜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경륜’과 ‘시대’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는 ‘관리하다’, ‘규제하다’, ‘집행하다’, ‘계획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의 일을 나누다, 할당하다, 집행하다, 혹은 관리하다’를 뜻하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oikonomia)와 영어의 ‘economy’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이코노미아’는 다음과 같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oikos = 집(house)
2. nomos = 법(law)

따라서 이 단어는 ‘한 집안의 법’ 혹은 ‘집안 법’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족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집안의 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에는 구성원이 따라야 할 ‘집안 규칙’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에게 부여한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까? 규칙을 어겼을 때 꾸지람을 듣지는 않습니까?

3) 원래는 경륜주의자라는 말이 더 맞지만 이미 국내에서 세대주의자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종종 세대주의자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경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dispensation’ 자체는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1.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dispensation)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엡1:10).
2.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dispensation)을 너희가 들었으리라(엡3:2).
3.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dispensation)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함인데(골1:25)
4.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dispensation)이 내게 맡겨졌느니라(고전9:17).

‘dispensation’과 같은 어원을 가진 그리스어는 또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청지기직’(stewardship)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보면, 경영 체계를 집행하는 관리자(오이코노모스)는 재산의 청지기나 관리자 혹은 회계를 맡은 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란 의미의 dispensation의 중심 개념은 가정의 일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먼저 ‘청지기직’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A. 청지기직

청지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 - 물건이나 재산 - 를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청지기를 둘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유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말 10필과 보트 8대, 20만 평의 땅과 500두의 소, 3개의 풀장, 25대의 자동차, 8대의 트럭 그리고 하나의 유전(油田)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을 잘 꾸리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돌보는 책임을 맡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청지기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에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청지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은 창세기 3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6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는 이 사람의 손에 맡겨졌습니다(창39:4, 6).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관리했으며 그의 주인인 보디발은 자기 집과 자기 재산이 ‘신실한 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그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자 그 집의 소유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의 관리인은 요셉이고 집의 소유주는 보디발이었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보디발의

소유이지 요셉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집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B. 특권과 책임

보디발의 소유를 관리하는 요셉에게는 특권과 책임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자는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보는 데 대한 책임과 특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크고 놀라운 약속을 쥐어 주셨습니다(창12:1-3; 17:1-8). 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거룩한 율법과 명령들을 주셨습니다(출19-21장).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엡3장). 믿는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릴 권한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청지기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지기직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멋진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아무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직장에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만 이 점포에서 일하면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것을 배우겠고 값진 경험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얻는 유익이 많을 것이며 시간에 따른 대가를 받습니다. 꾸준히 신실하게 일하다 보면 어느 날 승진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자리에 책임이 따릅니다. 고용주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게으르고 출근 시간에 지각하고 고객에게 불친절하다면 어느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점포의 주인은 당신이 신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맡은 것을 바르게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을 잘 처리했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직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맡기셨고 그것을 바르게 꾸려 가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요 특권임을 의미합니다.

청지기직 혹은 경륜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용례

A. 이 단어의 성경적 용례

신약 성경에는 ‘세대’란 단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20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 ‘오이코노메오’는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명사 ‘오이코노모스’는 10회에 걸쳐 사용되었으며(눅12:42; 16:1, 3, 8; 롬16:23; 고전4:1, 2; 갈4:2; 딤후1:7; 벘전4:10) 로마서 16장 23절에서 ‘재무관’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청지기’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명사 ‘오이코노미야’가 9회 사용되었는데(눅16:2, 3, 4; 고전9:17; 엡1:10; 3:2, 9; 골1:25; 딤후전1:4) 이 구절들에서 이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청지기, 세대, 직분, 경영 체계, 위임, 일 등).

B. 이 단어의 성경적 특징

이 단어에 대해 어떤 형식상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이 단어와 관련하여 신약 성경에 나타난 특징 중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세대주의

체계만의 특징들이 아니며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통해 관찰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두 비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눅12:42; 16:1, 3, 8). 이 두 비유는 모두 청지기가 집안을 관리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비유는 청지기직 혹은 경영 체계, 즉 경륜의 구성 및 배열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 줍니다.

1. 기본적으로 두 부류, 즉 의무를 부과하는 권세를 지닌 자와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책임을 지닌 자가 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에서 부자와 청지기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절).
2. 독특한 책임이 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재물을 허비함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1절).
3. 책임뿐만 아니라 회계 보고도 이러한 구성 및 배열의 한 부분이다. 청지기는 어느 때라도 부름을 받아 자기의 청지기직 이행 실적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가 청지기에게 맡긴 의무들을 그가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할 특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 현재의 경영 체계하에서 신실하지 못한 요소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 2절).

이 네 특징은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쓰였을 때 경영 체계상의 합의된 구성 및 배열이라는 개념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만 나옵니다. 다음의 용례들은 이 단어의 개념의 특징들을 보여 줍니다.

1. 사람들이 청지기 직무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닌 대상은 하나님이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관계를 세 경우에 대해 언급한다(고전4:1-2; 딤후1:7).
2. 경영책임을 맡은 자들에게는 신실함이 요구된다(고전4:2). 이것은 어떤 도시의 재무관(청지기)이라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에라스도에게 의해 잘 나타난다(롬16:23).
3. 청지기직은 정해진 시간에 끝날 수 있다(갈4:2). 갈라디아서의 해당 구절의 경우에는 다른 목적이 도입되면서 청지기직이 끝남을 보여 주며 또한 경영 체제가 시간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4. 세대들은 하나님의 신비,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특별한 계시와 관련이 있다(고전 4:1; 엡3:2; 골1:25).
5. 경륜/세대와 시대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이 두 단어를 항상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륜 혹은 경영 체제가 어떤 시간상의 기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서로 연관이 있다.
6. 사도 바울은 적어도 세 경영 체계 - 세대주의 가르침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 세대 - 를 언급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그는 “때가 충만히 찬 경륜 혹은 경영 체계”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기간을 가리킨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혹은 청지기직’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선포한 내용을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5-26절은 신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된 현재의 세대보다 앞선 또 다른 세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위의 여섯 경우 중 처음 두 경우에서 우리는 성경이 세대 혹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은혜의 세대와 때가 충만히 찬 세대라는 기간에 대해 이야기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두 세대를 부르고 있으며 또한 셋째 세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경륜/세대 요약

이제 다시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경륜'이라는 말은 '청지기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경영 체계는 한 청지기직인데 여기에는 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집주인

청지기직이 있다면 집의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안의 법'을 세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의무와 책임, 특권을 규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집의 주인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히 3:4 참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창14:19, 22).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며 머리가 되십니다.

B. 집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인이 그 규정을 집행하고 권위를 행사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세상입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님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거거 거하는 자들도 그러합니다."(시24:1; 창18:25; 출9:29 참조) 세상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은 자신의 뜻과 지혜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관할하십니다.

C. 청지기

집주인과 집 말고 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집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물건이나 직무를 맡습니다(사도행전 17장 30절과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준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청지기가 '집안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곤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곧 인류입니다(고전4:1-2; 딤후1:7; 벰전4:10).

이제 성경의 경륜과 관련하여 세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집주인: 살아 계신 하나님
2. 집: 세상
3. 집의 청지기: 인류

경륜은 여러 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집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안 규칙이

늘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일한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 각자에게 적용된 집안 규칙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집안 규칙은 베드로 시대의 규칙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 규칙이 다르다면 경영 방식 혹은 경륜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A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B라는 사람의 집으로 일자리를 옮겨가면 B 집의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집의 규칙 중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가정부는 B 집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경륜이 단순히 '집안 규칙'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각 경륜에 단지 규칙만을 주시지 않고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다루어야 할 어느 정도의 진리도 주셨습니다. 규칙과 법에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특권과 기회와 책임이 따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집안 규칙'을 말한다고 해서 각 경륜에 주어지는 규칙과 책임과 특권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는 규칙이나 특권이 있고 바뀐 것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살펴봅시다. 김철수 씨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에게는 세 가지 '집안 규칙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세대 차가 나는 세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맡겼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권뿐 아니라 장남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부과됩니다. 여기 김철수 씨 집안의 '세 가지 규칙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 예는 한 아버지와 나이가 서로 다른 세 아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A. 열 살짜리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오후 8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 것
- 매주 용돈이 지급됨
- 숙제에 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차를 모는 특권은 주어지지 않음 등등

B. 열다섯 살 먹은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오후 10시에 취침할 것
- 매주 막내보다 많은 용돈이 지급됨
- 숙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
- 아직 차를 몰 수 있는 특권은 없음 등등

C. 스무 살 된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취침시간에 대한 규정 완화
- 용돈은 없음 - 스스로 벌어서 쓸 것
- 졸업했기에 숙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운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짐 등등

세 아들에게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원리가 경륜에도 적용됩니다. 앞에 나온 동일한 아버지(김철수 씨)에게 다른 시기에 태어난 세 아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과 다른 때 태어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더해진 규정이나 책임이 있고 그대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기에 태어나 서로 다른 경륜에 살았던 세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D. 노아 - 홍수 이후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창6:9)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히11:7과 비교)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함(창9:6)
- 짐승의 희생을 드림(창8:20)
- 안식일을 지키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E. 다윗 - 모세의 율법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신8:1)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함(출21:12)
- 짐승의 희생을 드림(레1-5장)
- 안식일을 지키고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음(레12:3; 신5:12-14)
-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F. 바울 - 교회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나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요일2:3-5)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함(롬13:1-4)
- 짐승의 희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음(히10장)

- 안식일을 지키라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필요 없음
-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음(마28:19-20)

이처럼 세 경륜 속에서 꾸준히 남아 있으면서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뀌거나 변화된 사항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경륜이나 청지기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규정이나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령 어느 경륜에서나 거짓말, 살인, 도둑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었습니다(히11장 참조). 즉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뀐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도움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200년 전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에 TV나 자동차, 전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생활 환경이 오늘날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차하는 대신에 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옷을 빨기 위해선 세탁기 대신에 빨래판과 물,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편리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만 맞추어 놓으면 되는 대신에 밖에 나가 장작을 구해다가 불을 때야 합니다(물론 오늘날에도 장작으로 난방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 살았다면 해야 할 일, 즉 책임이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같은 것도 있겠지요. 가령 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200년 뒤에 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대신에 다른 운송 수단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개인 컴퓨터를 소장하고 다루는 것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변치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는 모두 동일한 집안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경륜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 규정과 권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바울, 요한도 같은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 1-3장까지)에 그 규정과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에게 속한 동일한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경륜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일곱 경륜

고전적 세대주의에서는 인류 역사에 대개 다음과 같이 일곱 개의 경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경륜	요약
(1) 무죄(아담)	무죄 경륜은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막을 내린다.
(2) 양심(에녹)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심 아래 살고 있다.
(3) 인간 정부 (노아, 홍수 이후)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 정부 아래 살고 있다.
(4) 약속(아브라함)	이 경륜 이후에도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갈 3장).
(5) 율법 (다윗, 침례자 요한)	율법은 씨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지만 십자가로 막을 내린다.
(6) 은혜(바울)	다른 경륜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때에 가장 크신 은혜가 증언된다(엡2-3장).
(7) 천년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경륜에도 있었지만 왕국 경륜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 민족들을 치리하심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으로 이어진다.

무죄 경륜 전에는 영원 전 과거가 있으며 왕국 경륜 이후에는 영원 후 미래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각 경륜의 이름 옆에는 그 경륜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왕국 경륜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므로 없음).

각 경륜은 하나님이 독특한 경영 방식과 특권을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물론 그 기간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각 경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규정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경륜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 경륜에서보다 더 많은 진리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진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점진적으로 진보적으로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계시됨을 의미합니다.

각 경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장들에서 설명될 것입니다(3장부터). 그때에 여기 기록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네 가지 고찰 사항

각 경륜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A.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 각 경륜이 시작될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 당시 사람의 책임은 무엇이었는가?
-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계시를 내렸는가?
-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B. 사람의 책임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C. 사람의 실패(혹은 각 경륜이 끝날 때 사람의 상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 사람은 집안의 규정을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우리는 각 경륜마다 사람이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람은 위대한 구원자가 필요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상기시켜 줍니다. 즉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D.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맡기셨는데 사람이 제대로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는 각 경륜이 사람의 실패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의자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말로 뜻하셨다고 믿으며 그분께서는 오직 자신이 뜻하신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즉 세대주의자는 간략히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사66:1-2).

세대주의자는 누구인가?

지난 장에서 우리는 “경륜 혹은 세대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단어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바울이 다른 경륜에 살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세대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청지기직을 이해하며 - 실로 하나님은 그에게 몇몇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셨다 -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모두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2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아볼까요? 세대주의자는 적어도 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1. 세대주의자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마지막 장에서 배울 텐데 세대주의자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를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 방법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가령 다윗은 노아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고 있었고 바울은 다윗이 들어 본 적도 없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세대주의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차이점을 인지합니다.

1. 사람의 타락 뒤에 생긴 차이
2. 대홍수 뒤에 생긴 차이
3. 바벨탑 심판 뒤에 생긴 차이
4.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생긴 차이
5. 율법이 수여된 뒤에 생긴 차이
6.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뒤에 생긴 차이
7. 교회의 휴거 뒤에 생길 차이(요14:3; 살전4:13-18)
8.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뒤에 생길 차이(계12:7-12)
9.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생길 차이(계20-22장)

우리는 나중에 각각의 경륜에 대해 배울 때 이 차이점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2.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문자적’(literal)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과장 없이 혹은 상상하지 않고’라는 뜻을 지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가 읽은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평범한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특별하게 문맥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어의 숨겨진 뜻을 파헤치려 하거나 없는 뜻을 만들어 내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고쳐서 이해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6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1장; 출20:11).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때 6일은 그냥 6일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온 우주가 24시간의 하루가 여섯 번 지나면서 형성되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이 ‘6일, 즉 여섯 날들’을 문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창조의 날들은 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니라 ‘경륜’ - 긴 기간의 시간을 가리키며 이 경우 ‘날=경륜’은 그 기간이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에 달합니다 - 이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가 6개의 매우 긴 시대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즉 “날은 날이 아니라 매우 긴 시대를 의미한다.” 등).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다름 아닌 문자 그대로의 ‘6일’로 받아들입니다.¹⁾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전반부의 2-7절을 읽어 보면 ‘천 년’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 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천 년은 그냥 천 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 ‘날’이라는 단어가 하루 24시간보다 더 긴 기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날’(a day)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가리킨다. 이 날은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계12:6, 14). 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에 살고 있다.”고 말할 때 이 은혜의 날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날을 뜻한다(벧후3:8-9). 이 날이 하루 24시간만을 뜻할까? 이진 어떤가? “조지 워싱턴은 자동차나 전화기 혹은 비행기가 없던 날(a day)에 살았다.” 아브라함과 모세,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날’(the same day)에 살지 않았는가? 여기서 ‘날’이라는 단어는 ‘시대’를 뜻하며 그래서 우리는 “조지 워싱턴은 차가 없는 시대에 살았다.”고 이해한다. 이 경우 ‘날’이 하루 24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맥으로 보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날’이 복수(곧 ‘days’)로 쓰였거나 출애굽기 20장 11절(6일), 창세기 1장 13절(‘셋째 날’)처럼 앞에 수사가 붙을 경우 그 의미는 분명 하루 24시간이다. 더 자세한 것은 미들타운성경교회의 홈페이지에서 「6일 창조」(*The Six Days of Creation*)라는 책자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상에서 천 년 동안 다스리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천 년에다 다른 의미를 붙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문을 읽는 데 첫 면에 ‘부시 대통령 4일 예정으로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방문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거야. 중국도 실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일 거야.” 이것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제쳐 둔 채 엉뚱한 의미를 취하면 당연히 말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중국’은 ‘중국’으로 ‘4일’은 말 그대로 ‘4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문자적인 방법이며 바로 이런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서 편지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에게서 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 전에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덕분에 이들 동안 병원 신세를 졌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겠습니까? 설마 ‘말’은 ‘코끼리’를 ‘다리’는 ‘머리’를 ‘이들’은 ‘두 달’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친구가 ‘코끼리’를 말하고자 했다면 왜 굳이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A. 간단한 규칙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접하는 단어들을 - 그것들의 정상적인 의미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 항상 문자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평범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평범한 의미로 말이 잘 통한다면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께서는 우주를 6일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 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년’은 그냥 ‘천 년’일 뿐입니다.

물론 가끔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의 고유한 의미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들이 통과하는 실제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요10:1, 2, 7). 그렇게 이해하려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은 문을 통해 어떤 장소를 드나듭니다.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문을 열고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다른 예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문자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며 제자들은 실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구원자와 그를 믿는 이들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믿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즉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빵을 취하사 제자들에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6). 그리고

잔을 취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7-28). 그 빵이 정말 주님의 몸이었을까요? 그 잔이 실제 주님의 피였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실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으며 예수님도 이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며 말합니다. “이봐, 이게 내 아내야.” 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과연 한 장의 사진이 실제 자기 아내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은유 혹은 환유라 불리는 수사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는 실제 “이 사진에 내 아내의 모습이 있어. 내 아내 사진이지. 이 사진을 보면 내 아내를 떠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나의 몸을 나타내고 이 잔은 내 피를 보여 준다. 너희가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또 내가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고전11:24-25).

B.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 생각에 성경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놔두고 거기 있는 단어에다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냇가에서 돌 다섯 개를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섯 개의 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돌은 용기를 상징하고, 둘째 돌은 믿음을 상징하며, 셋째는 힘을, 넷째는 승리를, 다섯째는 성공을 뜻합니다.”

과연 성경이 이 돌들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까? 돌은 그저 돌에 불과합니다. 이 돌들 중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용기와 믿음을 겸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승리와 성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장(삼상17)을 읽고서 알게 된 내용이지 다윗이 집어든 돌들에서 추론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의 위치와 용례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어에다 이상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3.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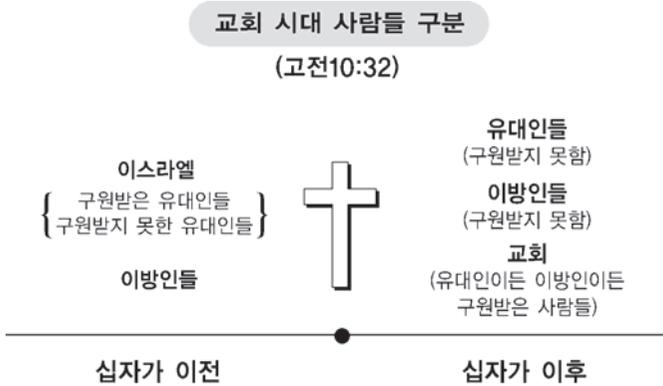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조심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살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유대인들)이 교회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수태가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 속으로 태어났습니다(행2장). 그 이전에는 누구도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말합니다(롬9:4-5).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유대인’이라 불립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들을 통칭합니다. 즉 이방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입니다(엡2:11-12).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유기체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는 모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구원받아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고전12:13).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다음은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주는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에 나오듯이 십자가 이전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수태되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신문에 철수가 부산행 무료 항공권에, 영희가 제주행 무료 항공권에 당첨되었다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희가 부산에 가게 됐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나겠지요? 성경을 잘못 읽을 때에도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각각을 향해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임의로 취하여 그것들을 교회를 위한 것으로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철수의 부산행 티켓을 영희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롬11장과 비교).

4. 세대주의자는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

각 경문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어떠한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가치, 중요성 등을 알리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사람과 천사들에게 알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차이점을 공부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여러 사람을 향해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언가 공통된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을 말해 보기 바랍니다.

1. 여호수아기 4장 24절(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2. 사무엘기상 17장 26절(다윗과 골리앗 시대). 하나님은 온 땅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3. 열왕기상 8장 43절(솔로몬 시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4. 열왕기상 18장 36절(엘리아 시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5. 열왕기하 19장 19절(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은 땅의 모든 왕국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6. 에스겔서 36장 23절(에스겔 시대).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교도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7.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이제껏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 오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분께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할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빌2:10-11).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주된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요 3:16; 딤후2:4 등)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음을 잘 보여 줍니다(요일4:14; 비교 요3:17).

노아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벧전 3:20)? 단지 여덟 사람만 방주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모두 땅에서 멸망하였습니다(벧후3:6). 구원받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노아의 날에 하나님은 실패하신 셈이 됩니다. 성경은 지금도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마7:14).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날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즉 자신이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로우심을 보여 주십니다(창6:8-9; 히11:7).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퍼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모든 경륜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5.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른 바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 - 대부분의 장로교인들 - 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륜들이 서로 구분된다고 믿지 않고 단지 두 개의 언약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 신학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A. 언약 신학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 - 개혁 신학을 믿는 다수를 포함함 - 은 인류에게 두 개의 언약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은 이 두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1) 행위의 언약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협정을 말합니다.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언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다.
2. 이것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다.
3. 아담이 이행해야 할 언약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다. 그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했다.
4. 불순종의 대가는 사망이었다(창2:15-17).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행위의 언약’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 은혜의 언약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둘째 언약인 은혜의 언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성난 하나님과 죄인 간에 맺어진 은혜의 협약입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된 구원자(창3:15)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3) 언약주의의 문제점

언약주의 신학자들의 말 중 상당 부분이 옳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길 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약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언약(특히 은혜의 언약)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언약이 것처럼 중요하다면 아마도 성경은 그것을 여러 번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행위의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같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용어들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며 성경의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언약을 언급하나 ‘행위의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창9:8-17)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창17:1-4)
3.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출19:5-8)
4.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삼하7장)
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 ‘새 언약’이라고 불림 - (렘31:31-34)

이처럼 성경에 여러 언약이 있지만 ‘행위의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 ‘은혜의 언약’에 비추어 이해하려 합니다. 또 어느 경륜에서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자신의 은혜로 길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곧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엡1:6)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엡1:12).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1:14).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정죄받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피라오의 경우 - 롬9:17-22)! 사람이 구원받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B.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극단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선, 한계를 넘어선, 극단적인’이란 뜻을 가집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경륜의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성경의 차이점만을 부각하여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다음 질문에서 주된 문제가 야기됩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언제인가?” 세대주의자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행2).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교회의 시작을 그 뒤로 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주후 47년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사도행전 28장(주후 60년경)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시작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의 몇 부분은 오늘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들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 침례는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의 만찬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말함).
3.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명령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13장이나 사도행전 28장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으로 간단히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사람들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핍박은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3절; 9장 1-2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때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다면 교회는 그때 이미 존재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핍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이나 28장은 바울이 구원받은 뒤의 일을 다루고 있으므로 교회의 시작 시기가 될 수 없습니다!

6. 용어 이해

다음은 하나님의 경륜들을 보여 주는 그림이고 그 안의 번호들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습니다.



1. 십자가 사건
2.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행1장)
3.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행2장)
4. 교회 시대(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됨 - 행2:47; 고전12:13 참조)
5. 교회의 휴거(요14:3; 살전4:13-18) -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감
6. 7년 환난기(땅에 큰 고통이 임하는 때) - 후반부 3년 반은 흔히 ‘대환난’으로 불림(렘 30:7; 마24:21)
7. 환난기의 중간(단9:27; 마24:15)
8.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심(마24:30; 계19장)
9.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천 년 동안 통치함(계20장)

전 장의 그림을 이용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시다.

질문 1 -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전 장 그림의 5번 참조)

휴거의 시기에 대한 견해

환난 전 휴거(*) ²⁾ (Pre-tribulation Rapture)	7년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환난 중간 휴거 (Mid-tribulation Rapture)	7년 환난기 중간에 교회가 휴거된다.
진노 전 휴거 (Pre-wrath Rapture)	7년 환난기의 3/4 즈음 되는 시점에서 교회가 휴거된다.
환난 후 휴거 (Post-tribulation Rapture)	7년 환난기 이후에 교회가 휴거된다.

질문 2 -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인가?(전 장 그림의 8번 참조)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

전천년설(*) (Premillennialism)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 왕국 이전에 이 땅에 오신다. '천 년'(millennium)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의 천 년의 기간을 가리킨다.
후천년설 (Postmillennialism)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이 왕국에 들어오고 지상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다.
무천년설 (Amillennialism)	'왕국'이나 '천 년'은 실제로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문자적인 지상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현재적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을 묘사한다.

2) 위의 표에서 (*)는 성경적인 견해를 가리킨다.

무죄 경륜

서로 다른 경륜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최초의 현장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천 년 전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A.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창세기 1장 26-27절은 사람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형상은 대부분의 동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21절을 보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이 동전을 들여다볼 때 그들은 누구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누구 얼굴입니까? 만 원짜리 지폐에는 누구의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까?



아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보여 줄 기회가 있었다.

↓

- 하나님의 진리
- 하나님의 선하심
- 하나님의 죄 없으심
- 하나님의 의
- 하나님의 거룩하심
- 하나님의 사랑
- 하나님의 신실하심
- 하나님의 순결함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볼 때 누구의 형상이 보입니까? 거울이 당신의 모습을 반영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은 거울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6-27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아담은 거울, 즉 하나님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비춰 주는 거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창1:26). 하나님은 아담을 땅에 있는 '만물의 왕'(사자가 아님)으로 만드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복이 아담과 이브에게 임하였습니다(창1:28).

B. 하나님은 죄인을 만들지 않는다

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모든 것(아담도 포함)을 보시니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창1:31).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죄인을 지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뒤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안에 악한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무죄하였습니다.

'무죄하다' 혹은 '천진난만하다'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가 없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처음에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범법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무죄'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지금 사람들같이 악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즉 악과 친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해도 사실 그것은 진리입니다(요일1:8과 비교). 또 그는 "나는 죄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요일1:10과 비교).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면 우리 역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은 죄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고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또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만한 죄가 그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사59:2와 비교).

아담은 완전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세상은 오늘날과 같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세상에 범죄가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죽음, 가난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살았던 세상은 현 세상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였습니다(창3:1; 계12:9). 사실 마귀도 처음에는 선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불법'을 마음속에 품은 이후로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2. 사람의 책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맡은 청지기직은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에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아담이 무엇을 해야 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아담은 에덴동산을 가꾸고 지킬 임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은 또한 아담이 받은 권리를 보여 줍니다. 아담이 받은 것은 모든

종류의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담은 사과나 오렌지나 복숭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에 거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종류의 과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아담의 책임이 나옵니다. 그는 특별히 조심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매우 간단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의 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창2:9). 그것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순종 여부를 간단히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담아, 내 말에 순종하려느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을 경우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 사람의 실패

아담이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게 된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발견됩니다(창3:6).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명령을 어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담은 생명 대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따르면 사탄에게 속은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까? 이브입니까? 이 말씀은 속은 장본인이 아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아담은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빠졌으므로 그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4. 하나님의 심판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22-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룹이라 불리는 천상의 창조물을 동산 동쪽에 두셔서 화염검으로 사람이 다시 이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5. 아담의 죄의 결과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마지막 두 단어는 “그가 먹으니라.”인데 이 두 단어는 세상을 통째로 바꾸어 버린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인류에게 일어난 어떤 재앙보다 더 혹독하고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 중 몇몇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롬5:12).
2. 고되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창3:19).
3. 출산에 고통과 슬픔이 따랐다(창3:16).
4.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롬5:19).
5.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롬5:18).
6. 땅이 저주를 받았다(창3:17-18).

오늘날 우리는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들로 복적대는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 단어로 구성된 창세기 3장 6절의 마지막 말씀의 결과입니다.

경찰, 의사, 판사, 군인, 목사, 선교사, 장의사, 형사, 생명 보험 컨설턴트, 간호사 같은 직업을 살펴봅시다. 아담의 죄로 인해 결국 이런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감옥, 장례식장, 묘지, 자동차의 안전장치, 병원 등도 아담의 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대인 관계 등을 보기 바랍니다. 사람의 타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냥 한 개비의 불씨가 떨어져도 숲은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롬5:12).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이 일 후 수천 년 뒤에 또 하나의 엄청난고 광범위한 성격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롬5:19).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전 15:22).

사망은 아담에게서 오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A. 손상된 형상

아담이 죄를 짓자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표면의 형상이 닳아 없어진 동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죄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 놓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죄와 자아와 사탄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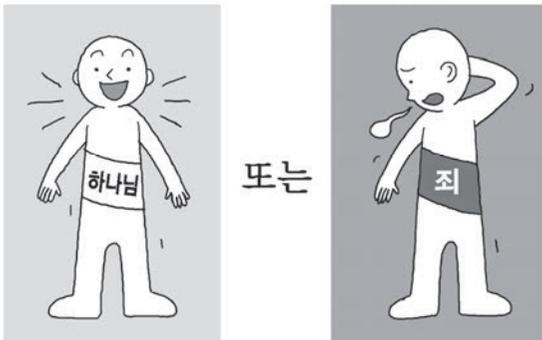
사람은 본래 무언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의 혼은 천진무구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보여 주며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혼은 죄 안에 있고 죄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것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 그는 새 본성과 옛 본성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엡4:22-24). 따라서 구원자를 드러낼 수도 있고 죄와 자아와 사탄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둘 중 하나를 나타낸다.



타락 이후 아담은 출생을 통해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자녀들은 무엇을 드러내었을까요? 답은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셋은 누구의 거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담입니까? 만일 우리가 셋을 본다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 모두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죄와 자아와 사탄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 구원받지 못한 상태 -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 구원받은 상태(고후5:17) -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엡4:24; 골3:10).

B.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신30:19).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신30:19)?

아담의 결정은 나무 -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에 달려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결정도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나무입니다(벧전 2:24).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양심 경륜

지난 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타락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아담에게 매우 단순한 명령을 주셨지만 아담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경륜은 보통 ‘양심 경륜’이라 불립니다. 이 경륜은 앞선 경륜처럼 사람이 무죄한 상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창6:8). 양심 경륜은 아담의 타락에서 홍수 때까지 이어집니다.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아담이 먹지 말라고 명령받은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창 2:17).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이브를 유혹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이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무언가 빠뜨린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는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엔 세 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1) 너희 눈이 열리고 (2)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3)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마귀는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생기는 손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창2:17). 유혹은 쥐뿔이나 낚시 바늘과 같습니다. 쥐뿔에 있는 미끼나 낚시 바늘 끝에 달려 있는 벌레는 쥐와 물고기에게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쥐와 물고기는 이제 곧 무언가 얻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은 실패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브는 뱀에 걸렸고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열매를 따먹기 전과 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므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창2:25와 비교).

군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말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즉시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창 3:7)! 그들 스스로 선이 아닌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었음을 안

아담과 이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기엔 때가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비참함이 교차했습니다. 스스로 놓쳐 버린 선과 저질러 놓은 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경험하신 적이 없지만 악에 대해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악을 알게 된 것은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악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는 어느 날 난로를 만지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난로란 것이 만지지 않으면 따뜻하고 좋은 것이지만 만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져 보고 고통을 경험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뒤에야 비로소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창3:22).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먹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A. 양심이란 무엇인가?

아담과 이브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가 그것을 깨닫고 고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가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즐겁다면 그는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체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알려 주는 장치를 우리 몸 안에 두셨습니다. 이 장치를 우리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신경이 사람에게 해롭습니까? 이롭습니까? 물론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신경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갖다 대었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고 난로가 뜨겁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손은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는 우리의 몸의 신경이 작용을 하여 급히 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야, 빨리 난로에서 손 치워! 아프단 말이야!" 또 만일 신경이 없다면 혀를 꺾처럼 씹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혀를 한 번 정도 깨물 수 있지만 대개 그것으로 끝납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신체의 이상 여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혼의 이상 여부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몸의 '신경'에 해당되는 혼의 감각 기관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무언가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을 알려 줍니다.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물론 선과 악을 알지도 못합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대로 살아가며 이따금 훈련을 통해 특정한 행동 양식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처럼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가 먹이가 아닌 것을 먹고 거실 카펫을 더럽힌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훈련시킬 수는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담 스스로가 자기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 넌 유죄야! 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창세기 3장 7절 말씀대로 아담은 자기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B. 계기판의 빨간 불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경고 장치’와 같습니다. 차에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은 이상이 있으니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양심은 자동차의 계기판에 있는 빨간 불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은 경고 장치로 차에 장착되어 있는데 운전자에게 엔진이 과열되었거나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 줍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무언가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지혜로운 운전자라면 경고를 받아들여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즉 차의 뚜껑을 열고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운전자는 “계속 깜박거리는 저 빨간 불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망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박살냅니다! 그러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것은 신경이 죽은 손으로 뜨거운 난로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빨간 불이 깜박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운전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차를 몰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운전자는 빨간 불이 자기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양심에도 이런 ‘망치 요법’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지적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양심이 가져다준 나쁜 감정을 떨쳐 버리려고 애씁니다. 망치로 계기판을 박살 낸 운전자처럼 말입니다. 각종 약품, 마약, 알코올, 혹은 충격 요법이나 기타 여러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때 술 취한 상태였다면 나쁜 기분은 들지 않았을지 모르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먹으로 빨간 불을 계속 친다면 빨간 불이 더 이상 점등되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자체 고장으로 더 이상 차의 고장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엔진이 과열되든 팬벨트가 끊어지든 빨간 불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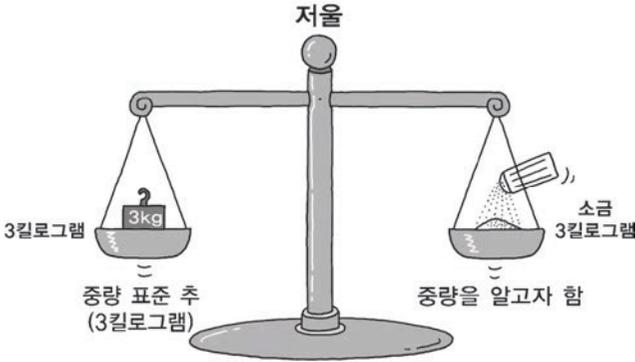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딤후4:2).

여기에 나오는 영어 단어 ‘sear’는 ‘낙인을 찍다, 강한 열로 태우다, 지지다’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의 양심에 죄의 화인(火印)이 찍히면 그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거나 판단하게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심이 너무 상하면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차에 이상이 있는데도 작동하지 않는 빨간 불과 같습니다.

C. 저울

양심은 또한 저울에 견줄 수 있습니다. 즉 양심은 자아의 판단을 재는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들을 저울에 달아 보아야 하며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바른 답을 대기 위해선 정확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저울의 정확성이 표준 추의 정확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표기된 표준 추의 무게는 3킬로그램인데 실제 무게는 2킬로그램이라고 합시다. 실제 저울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몇 킬로그램의 소금이 접시에 놓여 있었습니까? 2킬로그램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실제 소금의 무게가 2킬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3킬로그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짜 3킬로그램의 소금을 오른쪽에 있는 접시에 올려놓는다면 양팔 저울은 오른쪽으로 기울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추의 무게가 2킬로그램에 불과하므로 결국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양심도 이 양팔 저울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달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리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만일 양심에 바른 정보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제대로 무언가를 측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틀린 것을 바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바른 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움직입니다. 양팔 저울은 정확한 추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면 할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저울도 정확해집니다.

D. 대개 양심은 잘 작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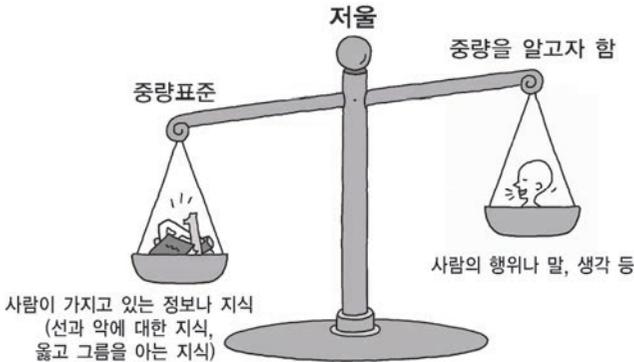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기본 지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나타나듯 사람의 양심은 이 지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출20장)과 또 다른 율법들을 주셨고 이로써 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그들은 살인과 도둑질, 탐욕은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이 로마서 2장 14-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롬2:14). 이들은 십계명이란 것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4-15절은 이방인들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록된 율법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행했을 때는 양심이 갈채와 격려를 보내고, 나쁜 일을 행했을 때는 양심이 정죄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그들의 양심, 즉 ‘혼의 신경’은 잘 작동합니다.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1) 아비멜렉, 너그러운 왕

창세기 26장 6-16절에는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왕인 그에게는 성경은커녕 십계명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창26:7). 뒤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자기 사람 중 한 사람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게 되면 그것은 곧 간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결혼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간음이 나쁜 것임을 알았습니다(창26:10-11). 비록 그가 구원받지 못했고 십계명도 없었지만 간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작용하여 그의 양심은 이미 결혼한 여자를 취하려는 생각을 정죄하였습니다.

(2) 멜리데의 야만인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우리는 멜리데 섬에 사는 친절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역시 구원받지 못했으며 그들에게는 성경도 십계명 사본도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록된 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도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었습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자(행28:3) 이를 본 야만인들은 그가 죄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행28:4). 원주민들은 살인이 나쁘다는 것과 살인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그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행28:5-6) 선과 악에 대한 그들의 개념만은 옳았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작용하여 그들은 살인이 악하다는 것을 제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곧 구약의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과 구약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E. 때로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먼저 나왔던 빨간 경고등을 생각해 봅시다. 본래 이 경고등은 잘 작동하여 사람들에게 차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등이 틀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폭우로 전선이 젖었다고 합시다. 이 때문에 차에 이상이 없는데도 경고등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빨간 불이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를 보내므로 뚜껑을 열고 살펴보지만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이상은 차에 생기지 않고 경고등에 생겼습니다.

이처럼 양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8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 먹기를 꺼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고전 8:7) 좀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했기에 음식물을 먹는 순간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레를 밟아 죽이거나 파리를 잡았을 경우에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점에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돼지를 잡습니다(짐승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심 이전 다소의 사울(바울)의 양심은 그릇된 정보를 보내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행26:9-11). 실제로 사울은 그리스도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요16:2와 비교). 하지만 나중에 바울은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게 되고(행9장)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선과 악을 알며 양심도 제대로 된 신호를 보냅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자손들도 잘 작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예리한 지각이 있었습니다.

2. 사람의 책임

사람은 선과 악을 알았습니다(창3:22). 지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했습니다. 즉 양심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고 양심이 정죄하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기 바랍니다. 아벨은 선을 행했고(히11:4) 가인은 악을 행했습니다(요일3:12와 비교). 그런데 잘못 행한 가인은 화를 냈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런 나쁜 느낌은 그의 양심이 보낸 것이며 그는 이것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이상 현상이 그의 삶 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서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창4:6-7). 가인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창4:7). 가인에게는 잘 행할 책임, 즉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그를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야수처럼 죄, 즉 가인의 옛 죄성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잘 행하지 못했습니다(창4:8-9).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3. 사람의 실패

창세기 6장에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독한 실패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사악함이 심히 컸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난 생각은 항상 악했습니다(창6:5). 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했습니다(창6:11). 부패는 예외 없이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모든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입니다(창6:12). 이 어두운 시대에도 몇몇 빛나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행했던’ 소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7절에는 이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세 사람, 즉 아벨(창세기 4장), 에녹(5장), 노아(6장)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서 14-15절에는 하나님을 따른 에녹이 당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이란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 살았던 매우 경건한 사람(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4. 하나님의 심판

이처럼 부패된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창7:11-12, 23).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덟 명이었습니다(벧전3:20; 벧후2:5).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홍수의 심판을 다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9:11, 15-16).

5. 이 경륜은 끝났으나 양심은 지속된다

비록 양심 경륜이 막을 내렸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양심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산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포함한 모든 경륜에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율도 악을 멀리했습니다(욥1:1). 이러한 의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롬12:9; 벧전3:11).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양심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안내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성경)입니다. 성경이 선과 악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말씀(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7:17).

우리의 저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저울에 참되고 바른 표준이 놓일 때 우리는 정확히 무게를 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 그의 생각들은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입니다(롬2:15). 바꾸어 말해 바른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울은 매우 정확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이란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심이 정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청신호를 보내는 일만 해야 합니다. 붉은 신호나 노란 신호를 보내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롬14:23)는 말씀은 사람이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믿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당신의 양심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양심이 약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가적인 지식과 정보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바르다고 믿고 행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르다고 믿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바르다고 믿는 일만 행한다!”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양심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선과 악에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옳고 그름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정말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까? 당신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저울에다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게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어 가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이런 일을 행할 때 양심이 그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라서 이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저울이 정확한 저울이 되기를 바라야 하며 더욱 주의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합니다.

인간 정부 경륜

앞 장에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패를 배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홍수 이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륜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새로운 진리나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는데 성공하였습니까?

인간 정부 경륜은 홍수가 끝난 때(창8-9장)부터 바벨탑 사건(창11장)까지의 기간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이 흥미로운 경륜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덟 명이었습니다(창8:15-16, 18; 뱀전3:20과 비교).

창세기 6장 9절에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창15:5-6).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진실로 의로운 이는 단 한 분뿐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셔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보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의한 자

"의로운 자는 없으나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롬3:10)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고후5:17)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롬3:22)

대홍수 뒤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덟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다.

1.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항상 확신해도 되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 중 몇 가지가 창세기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겨울 다음에는 항상 봄이 옵니다.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찾아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절기나 밤낮의 주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땅이 있을 동안 지속될 것이므로 그분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2. 창세기 9장 2절에 따르면 짐승과 날짐승과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은 육식을 하도록 처음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창9:3).

3.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9:11-15). 물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년 세계 각 지역에서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합니다. 단지 땅의 모든 사람을 휩쓸어버린 노아 당시의 전 세계적인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창11:1과 비교).

2. 사람의 책임

창세기 8장 17절에는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창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들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창9:1). 창세기 9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손을 낳고 번성하여 땅에 복적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온 대로 사람들은 땅을 채우는 대신 한 곳에 모여 살고자 했습니다(창11장).

A. 인간 정부의 책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커다란 가치를 두셨습니다. 사람이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9장 6절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살인자, 즉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이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그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사형 제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매우 값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창 9:6).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사람은 가장 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B. 사형 제도

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람이 죽음만큼 무서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음이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범죄자로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범인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직접 살인자를 처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피를 흘린 자, 즉 살인자는 내가 직접 죽이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잘못된 사람을 벌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창4:15).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두셔서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와 책임을 정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심지어 사형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큰 복이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행악자를 벌할 수 있고, 둘째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 왜냐하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자기 생명을 앗아갈 만한 일을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셋째 무죄한 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 제도는 모세 때에도 있었습니다(출21:12, 15-17).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사람을 쳐서 죽인 자,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흠쳐서 파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등은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정부는 사형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 13장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나오는 인간 정부는 일반적으로 선에 대해 보상하고 악을 응징합니다.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는 두려워해야 합니다(롬13:4).

로마서 13장 4절은 정부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에 임할 천년 왕국 때에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분은 주로 자신의 사역자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찰, 판사, 정부 관료들을 사용하셔서 범죄자를 처벌하십니다. 이것이 인간 정부의 책임입니다. 때로 정부가 칼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롬13:4). 물론 여기서 칼은 사형 도구를 나타내며 오늘날에는 칼 대신에 전기의자나 가스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행 25:11). 그리스도 곁에서 죽은 범죄자 중 하나는 자신이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눅23:40-41). 심지어 미개한 야만인들도 살인자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행28:4).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죄자이고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롬6:23). 로마서 1장 29-31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당신도 이 중에 하나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은 이 같은 일을 범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딤후1:15).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처형당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롬6:23; 5:8; 뱀전3:18). 누구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그분께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고전15:3)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람의 실패

우리는 노아의 날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지 8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들이 짐승들 외에 방주 안으로 들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지독한 질병이라 할 수 있는 죄, 즉 마음의 병이 그것입니다(렘17:9). 각 사람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21절은 의로운 노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잘 보여 줍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떨지 않은 채 있었다니

노아의 가족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부모와 같은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많은 손자들이 있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증손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처음의 여덟 혼은 수많은 사람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살던 아라랏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창8:4).
아라랏은 땅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방주가 처음 머물렀던 곳입니다. 시날 땅은 두 개의
큰 강,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의 땅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자기들의 거처로 삼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는 단 하나였습니다(창11:1). 단일 언어는 연합을 쉽게
하지만 여러 언어를 사용하면 연합이 어렵습니다. 가령 파티에 초대받은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참석해서 파티가 시작되면 이 사람들이 몇 그룹으로 나뉘겠습니까? 시날 사람들은 함께
작정하고 대형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창11:3). 당시 그 지역에는 커다란 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도시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리스의 사원들은 돌로 지은 것입니다. 돌이 없었지만 대신 그들은 엄청난
양의 진흙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었고 아스팔트(역청)를 접착제로 썼습니다. 보통 벽돌은
햇볕에 말립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들은 돌과 같은 강도를 얻기 위해 벽돌을 구웠습니다
(창11:3).

건물을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크신 하나님을 위해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왕상6장).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건축물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기를 거절했습니
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도시와 큰 요새 등을 짓고 자신들을
위해 이름도 지었습니다(창11:4). 그들이 원치 않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창9:1-7). 사람들은 연합을 원했고
큰 도시를 지어 땅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4.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도시, 요새, 그들의 악한 계획 등
모든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이제 그들이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리라(창
11:6).

죄인들이 모여 연합하게 될 때 그들이 행할 악이란 상상을 초월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건축 계획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다면, 즉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죄악은 깊어만
가고 사악함은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창11:6).

만일 부모님이나 경찰, 선생님, 법률, 양심이 없다면 당신은 어떤 나쁜 일, 즉 죄를

행하려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며 벌 받는 일도 없다면 무엇을 행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같은 일을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줄에 묶여 있는 위험한 개를 생각해 봅시다. 줄은 개를 붙잡고 있는 제어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줄이 없다면 개는 마음대로 사람에게 해를 줄 것이며 그로 인해 말썽이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인간 정부 - 경찰, 판사, 법 등 - 를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제지하십니다.

바벨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창11:7). 갑자기 언어가 하나에서 여러 종류로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대략 3,000종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건축 계획은 무산되었고 그 도시는 혼란/혼잡을 의미하는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창11:8-9).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함께 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세상으로 흩어져서 땅의 여러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들 혹은 민족들의 시작입니다(창10:5, 20, 31, 32).

여러 나라가 있을 때는 특별한 위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강성한 나라 없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몽치게 되면 참으로 위험한데 이는 모든 힘이 한 사람의 사악한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현시대 경륜의 마지막에 세계가 연합하여 한 지도자와 한 정부 아래 있게 될 것이며 누구든 이 사악한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계13장).

현 세상에서 우리는 바벨에 입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수업은 우리에게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이 다르므로 각 나라마다 성경을 번역해야 하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또 음식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단일 세계 정부 구축이 한층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사건들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 분야에서 지구촌 시대를 실감케 해 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송 수단 분야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인간 정부의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2:1-5; 9:6-7; 33:22; 렘23:5-6).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로운 분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왕이고 치리자이십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정부에다 맡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5. 오늘날 나의 책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부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정부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한국) 정부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정부 아래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A.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쏟아 ‘왕(대통령)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딤후2:1-2). 당신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시장이나 관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경찰, 소방대원, 판사,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그들이 자기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의 편에 서서 악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까?

B. 가능한 한 훌륭한 시민이 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빌3:20).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미국(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는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롬13:1). 선량한 시민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롬13:3).

사람의 정부, 사람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이 말은 순종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명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람의 법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권력에 순응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례 두 가지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약의 다니엘

다니엘서 6장 7-9절에는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 내려진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다(단6:10). 다니엘의 정부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바른 것이었습니다.

(2) 신약의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막16:15).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방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C.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어기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나쁜 일을 했다면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롬13:4).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할 목적으로 인간 정부를 두셨습니다. 당신이 법률을 어기고 범죄자가 된다면 아마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만일 살인, 절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 한 나라의 정부가 그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실제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좀처럼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종종 범죄가 응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살인자와 다른 범죄자들이 체포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범인은 자기가 형벌을 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는 언젠가 진짜 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가 이생에서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생에서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롬2:3). 사람과 치리자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D.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거나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벧전3:17; 4:14, 16). 심지어 사도 바울도 로마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죄목이란 그저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이가 잘 행한 것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가 있음을 알면 이에 대해 울부짖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마5:10-12).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것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우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것이 잘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어야지 죄들로 인한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벧전 3:17). 그리스도인이 은행을 털다가 붙잡혔다고 합시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소시키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정부를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인간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감사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입니까(골1:13)? 왕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십니까? 당신은 미국(한국)의 일부입니까? 당신은 나라의 법령에 순종하십니까? 당신은 법, 경찰, 군인 등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그들을 존경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또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딤후2:2)? 많은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7장

약속 경륜

바벨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그 나라들 가운데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특별히 5절, 20절, 31-32절).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민족의 조상이 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창12:1-3;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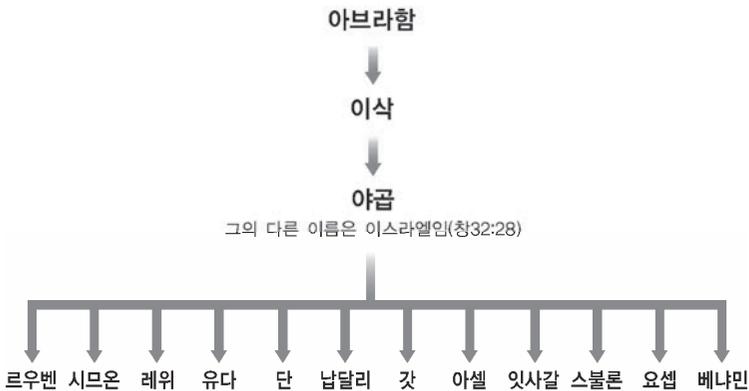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음에 나오는 이들을 매우 특별히 다루셨습니다.

한 사람 — 아브라함

한 가족 — 아브라함의 가족

한 민족 —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민족(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열두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스라엘 자손)가 나옴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장소에서, 즉 그의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떼어 내어 새로운 장소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집을 떠나, 당신의 나라와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모두 떠나 전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낯선 장소로 가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 그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기 24장 2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창 11:27 참조). 우리는 데라가 유프라테스강 저편에 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수24:2 후반부 참조).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참되신 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있지도 않은 거짓 신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거짓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거짓 종교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십니다(살전1:9).

창세기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땅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주어진 약속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갈3:16과 비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창세기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에는 “무언가를 하리라.”와 “무언가를 하지 않으리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위해 행할 일들을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내가 너로부터(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창12:2): 이 민족은 뒤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되었다.
2.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창12:2):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미칠 것을 말씀하셨다.
3.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창12: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적을 저주하시리라는 의미이다.
4. 네 안에서(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창12:3):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어느 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마1:1)가 나올 것이고 그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요일4:14).

이 두 구절(창12:2-3)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1. 민족(2절)
2. 복(2절)
3. 보호(3절)
4. 구원(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창12:4; 히11: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창세기 13장 14-17절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그의 후손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는 이 약속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강, 즉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성경 지도에서 이 두 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창세기 17장 5-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자손)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창17:8).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창26:1-5).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창28:10-15).

이 세 사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매우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므로(딤후1:2; 히6:18), 사람이 아니므로(민23:19), 약속하신 것을 이행할 능력이 있으므로(롬4:21), 신실하시므로(히11:11)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2. 사람의 책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에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남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그 약속을 꼭 붙잡고 부동켜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히11:1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믿는다. 그걸로 끝이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5-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아브라함이 별을 다 셀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가까이 보면 더 많은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창15:6).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창22:17의 약속 참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수는 모두 70명에 불과했습니다(출1:5). 이는 충분히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창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12절, 20절; 5장 5절과 사도행전 7장 17절을 읽고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롬4:20-21)

또한 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 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체류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게 복을 주리라. 또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할 것이며 또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복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개 곤경에 빠졌습니다. 가령 그들은 이집트나 바빌론에서 노예 상태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했습니다.

3. 사람의 실패

A.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창15:6).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에 있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사래를 통해 아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사래의 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물론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롬4:20-21).

B. 이삭의 실패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동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이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창25:21-23). 그러나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창 25:28). 이삭이 축복하기로 한 아들은 에서였지만(창27:1-4)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즉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속아 부지중에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고 그분에게 순응했습니다.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창27:33).

하나님은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삭도 결국 이에 동의하여 “야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고 동의합니다(히11:20).

C. 야곱의 실패

거듭거듭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창28:13-15; 32:24-29; 35:9-12). 그러나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갈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서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나민을 빼앗아 가려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매

이제 야곱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이제 막내인 베나민마저 잃어버리고 아들 시므온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야곱은 절망 중에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창42:36)라고 외쳤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야곱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고 결국 야곱은 요셉을 포함하여 자기의 열두 아들이 모두 살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일이 야곱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복과 선을 위해 함께 협력한 것입니다(롬8:28). 사실 고난 중에 그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후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D. 야곱의 아들들의 실패

이 장의 맨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열 명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무서운 일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요셉이 결국 이집트에 노예로 팔린 것으로 일이 끝납니다(창37:28). 그리고 그들은 야곱을 속여 자기들이 한 일을 은폐하였습니다(창 37:31-34). 이 모든 일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더 축복하므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생겨났습니다.

이 열 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두 주어진 약속임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요셉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이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창37:3) 우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모두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거야.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를 기다리자고!” 그러나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E.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는 데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1. 이집트 탈출 뒤 파라오가 추격하자 곧바로 이집트로 가겠다고 불평함(출14:10-14)
2.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즉시 불평함(출15:23-26)
3. 먹을 빵이 없다고 불평함(출16:1-8)
4. 호렙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함(출17:1-7)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4. 하나님의 심판

요셉의 형들이 그를 이집트로 팔 때만 해도 나중에 자기들의 자손들이 모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2-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악몽을 꾸니다(12절).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자손)가 남의 땅(이집트)에서 그 땅 사람들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세대, 즉 400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창15:13, 16). 그 뒤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집트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구해 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15:14).

창세기 46장 3-4절, 27절에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주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이 있을 때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모두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그 땅의 노예가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국고 저장 도시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극심한 노역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재료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라는 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의 날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해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출2:23-25; 행7:34). 오직 하나님만 이 끔찍한 속박의 삶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중간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8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해 나에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라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내가 하리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박의 땅에서 구출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을, 여호수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진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긴 적도, 취소한 적도 없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고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민23:7-18). 그의 이름은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약속하면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5.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기 바랍니다.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약속들에다 믿음을 함께 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히4:2).

여기 씨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가지를 내며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씨를 식탁에 둔다든지 다른 단단한 표면에 놓게 되면 그것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 깊이 심겨야 하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네 외투 주머니에다 20달러를 넣어 둘 테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쓰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당신이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마을에 내려가도 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없다고 생각한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쥐고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누가 봐도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거머쥔 다음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영생의 약속(요5:24; 요일2:25)
2. 구원의 약속(행16:30-31; 롬10:9, 13)
3.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행3:19; 행10:43)
4.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장과 안전의 약속(요10:28-30; 롬8:1, 38-39)
5.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벧전5:7)
6.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의 약속(마28:20; 히13:5)
7.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리라는 약속(시23:1; 빌4:19)

8. 강건함의 약속(사41:10; 고후12:9-10; 빌4:13)
9. 도움의 약속(사41:10, 13; 히13:6)
10. 용서와 죄 씻음의 약속(요일1:9)

당신은 매일의 삶에서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외에 생각나는 또 다른 약속은 없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는 어떤 약속들이 나올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울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울 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너무 어려운 일이 맡겨졌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죄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위에 있는 열 가지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히11:6).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행하리라고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고 그분의 약속은 참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요일12). 믿음은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제8장

율법 경륜

율법 경륜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데서부터(출19-20장)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오순절에 교회가 출생할 때 끝이 납니다(마27장, 행2장). 따라서 율법 경륜은 대략 1,500년의 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이 이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 민족으로 성장하여 여러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 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광야 생활(모세)
- 정복(여호수아)
- 사사기(재판관들)
- 열왕기
- 포로(아시리아와 바빌론)
- 고토의 회복(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율법 경륜에는 모세, 여호수아, 삼손,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침례자 요한과 같은 주요 인물이 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이 이 율법 경륜에 살았습니다.¹⁾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의 집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출20:2).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창15:13).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속박의 땅에서 구출하셨습니다(출14장).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목격하였습니다(출14:30-31). 이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심을 유감없이 보여 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8, 17절에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

1)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신약 시대를 여셨다(롬10:4; 갈4:4).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신약 시대는 십자가 이후부터이다(마26:26-29; 히9:15-17).

로라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됩니까?
자, 여기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출3:8, 17)
2.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신 것(출14장 -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놀라운 권능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불신을 보여 주는 예들입니다.

(1) 출15:22-26(홍해를 건넌 뒤 셋째 날) - 물이 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분께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불평했습니까?

(2) 출16:1-5(홍해를 건넌 지 한 달 뒤) - 먹을 것이 없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3절)?

(3) 출17:1-7 - 물이 없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까?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리라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외쳤습니까(3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까(7절)?

A. 시내산의 이스라엘

이집트 탈출 뒤 셋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의 언저리에 도착했습니다(출19:1-2).²⁾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과 명령을 주고자 하신 장소입니다. 시내산 도착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요약하며 나오는 두 단어는 “...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출14:30-31). 하나님께서 어떻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는지 보았습니다(출15:25). 하나님이 사막 한 가운데서 어떻게 먹을 것을 주셨는지 보았습니다(출16:11-15).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출17:6). 그들은 불평과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거듭거듭 목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장면이 나오니

2) 이스라엘은 초실절(그들의 달력으로 1월 17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율법을 받음(참고로 유월절은 1월 14일임). 오순절은 현재 달력에서는 6월 초순경임.

다. 흔히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름을 따라 ‘모세의 언약’이라 합니다.

이 언약의 조건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이행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모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출19:5).

이스라엘이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협약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자기 몫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출 19:8).

B. 자기 확신의 위험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백성은 한목소리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후에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출24:3).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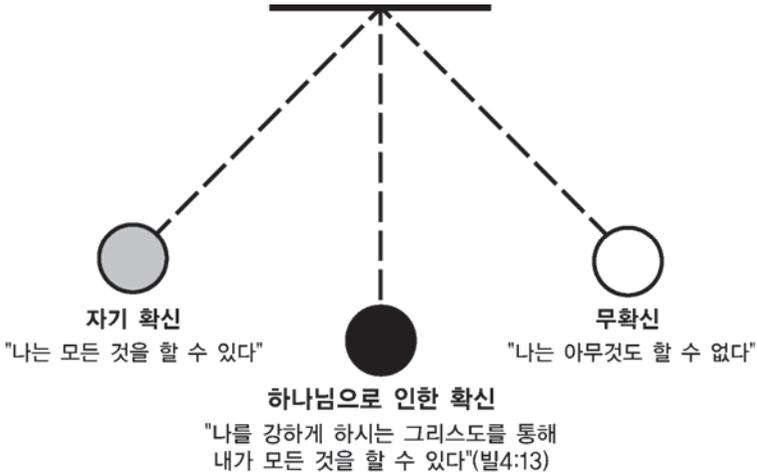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주님께 순종할 만한 힘이 없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5장 27-29절을 봅시다. 이때에도 그들의 자기 확신은 매우 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29절). 말과 마음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28절). 그들의 마음은 불순종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 하나님은 백성이 얼마나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는지 보시려고 한 가지 시험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모으는 일에 대한 매우 단순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첫째 규칙은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단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출16:20). 둘째 규칙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출16:22-26). 그들은 처음에 이것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출16:27).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과 출애굽기 24장 3, 7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달리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악하고 반역하며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은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만나를 모을 때 주셨던 두 가지 규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사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자기 확신도 문제지만 확신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계의 추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움과 조력 없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요15:5).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 없이는 저희가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일하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31절과 마가복음 14장 66-72절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확신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확신이었습니다.

C.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이라는 독특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어느 민족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신4:5-8).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이 십계명입니다(출20장, 신5장). 그 외의 명령들을 알고 싶다면 출애굽기 21-23장을 보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구분하여 총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삶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³⁾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나산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첫 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창2:17). 노아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그의 자손들도 명령을 받았습니다(창9:1-7).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명령을 주셨습니다(창17:9-12).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법이나 명령이 있었습니다(출15:26; 출16:28).

하나님은 시나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어떤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나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 부르셨던 특별한 의미의 법이었습니다(출19:5). 여기에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침과 규정과 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민족, 즉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출19:3; 20:2). 이집트 사람, 가나안 사람, 그 외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었습니다(출

3) 613개는 두 가지 형태, 즉 "...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365개)과 "... 하라"는 긍정 명령(248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365는 일 년의 날 수이며 248은 사람의 뼈마디 개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365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뺏속에 넣고 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34:27). 수많은 법과 명령을 포함한 이 특별한 꾸러미는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외의 다른 민족은 어떤 율법도 받지 못했습니다(신4:8).

2. 사람의 책임

하나님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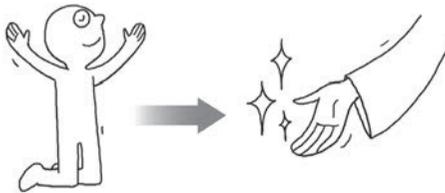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출19:5-6).

신명기 6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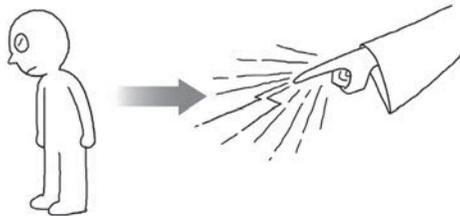
한편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네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네가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모세 언약의 조건에 따르면 순종에는 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라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 조건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순종(신명기 28장 1절)에는 축복이 따른다(2~6절)



불순종(신명기 28장 15절)에는 저주가 따른다(15~1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 명령들을 주셨습니다(신6:24).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 15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은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출19:8; 24:3, 7).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 즉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 즉 모두를 지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적인 순종을 기대하십니다(마28:20).

A. 실패했을 때의 행동 지침

하나님은 그 누구도 -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간도 실패하고 불순종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가령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법에 따라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희생물로 바쳐야 했습니다(레1-5장).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에 따라 각각의 희생에 맞는 짐승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요일1:9).

우리가 제단에 짐승을 희생물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요일1:9).

3. 사람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분명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정말 이 말대로 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나긴 반역과 불순종의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출20:3-5와 비교). 그 뒤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하시고(출32:8)

사사(재판관)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다(삿21:25). 왕정 시대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며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들 곧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시며 경고하신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더라(왕하17:12).

열왕기하 17장 7-19절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옵니다(특히 15, 19절).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행2:22-23; 살전2:15). 더욱 슬픈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는데 이는 빌라도가 이방인이어서 그의 뜰에 들어가면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다음에 나오는 경우와 같습니다. 한 은행 강도가 은행 문에 들어섭니다. 그는 은행 안에 먼지를 들이지 않으려고 도어 매트에서 자기 구두를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 문을 들어선 그는 갑자기 은행 창구 직원을 총으로 위협하고 10만 달러를 갖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24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을 적절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렌지 주스에 조그만 벌레가 있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벌레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기 오렌지 주스에 낙타가 들어 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고 낙타와 주스를 한 번에 꿀꺽 삼켜 버립니다. 빌라도의 뜰에 들어서는 것은 앞에 나온 작은 벌레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은 낙타와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과 명령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부모는 이 같은 방식으로(눅1:5-6)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4.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고 배웠습니다(신28:15).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28장 16-26절에 나오는 저주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큰 심판 중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아시리아 포로

- 주전 721년
- 북 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감
- 왕하17:3-6 참조
- 심판의 이유: 왕하17:7-18

B. 바빌론 포로

- 주전 606년 (주전 586년 성전이 무너짐)
- 남 왕국 유다가 강력한 바빌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감
- 왕하25:1-11 참조
- 심판의 이유: 대하36:14-17

C.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파괴

- 주후 70년
-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고 유대인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짐
- 마23:38; 24:1-2 참조
- 심판의 이유: 마23:37; 27:23-25; 요1:11

5.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자신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요14:15, 21, 23).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요15: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눅6:46).

우리의 놀라운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에베소서 4-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명령들도 지켜야 합니다.

순종의 일 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첫째 명령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행16:31; 요일3:23 전반부).

당신은 이런 명령들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가득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거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 인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사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주심으로 자신의 참된 기쁨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빌2:13).

그리스도 없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패뿐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해 낼 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우사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벧전1:14)!

율법의 역할과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율법을 준수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까? 율법을 어긴 대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을 거울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정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과 명령들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에 대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1.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왔습니까? 어겨 왔습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가장 큰 명령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이것은 ‘모든 율법의 제왕’으로서 마태복음 22장 36-38절에 나와 있습니다(신6:5 참조).

[한 율법사가 이르되,] 선생님이어,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당신은 이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생활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계십니까? 항상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 당신의 첫 자리에 와 있습니까? 과연 당신은 최고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삽니까?

A. 자가 진단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일단 그중에 5가지만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기를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1. 첫째 명령(출20:3) - 나는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나는 항상 주님을 우선하였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2. 셋째 명령(출20:7) - 나는 결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거나 생각 없이 내뱉지 않았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컬었다.

3. 다섯째 명령(출20:12) - 나는 항상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가장 높이 모셨다. 나는 부모에게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렸을 때에도 매를 맞은 적이 없다.
4. 여덟째 명령(출20:15) - 나는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손댄 적은 한 번도 없다.
5. 아홉째 명령(출20:16) - 나는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결코 거짓말한 적이 없으며 항상 모든 일에 정직했다. 나는 진실만 말한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율법에서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된다.”고 기록합니다.

위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이 어긴 하나의 명령 외에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은 비록 그가 겨우 하나를 어겼지만 여전히 율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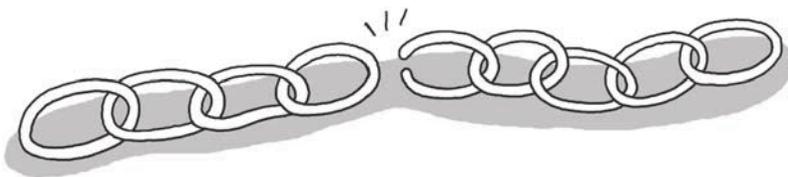
아버지가 자기의 십대 아들에게 ‘잔디 깎아라, 세차해라, 담장 칠하고 쓰레기 비워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잔디를 깎고 세차하고 담장을 칠합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하나 빼고 다 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불순종하는 아들입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습니까?

사람이 단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여기 사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 고리 중 하나가 끊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끊어진 사슬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음을 한 적은 없습니다(약2:11). 그래도 율법은 그를 범법자로 규정합니다.

고무 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가위로 그것을 열 토막 냅니다. 고무 밴드는 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군데만 자릅니다. 이 고무 밴드도 역시 끊어진 고무 밴드입니다.

사슬이 끊어짐



로프에 몸을 내맡긴 채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로프가 다섯 군데 끊어지면 그 사람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사람이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로프가 끊어지는 건 한 군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십계명만이라도 완벽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도다.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유일한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요8:46)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 말씀대로라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B. 율법은 나쁜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진단해 보면 우리가 모두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롬7:12).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보여 줍니다. 문제는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씻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합시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이 왜 이래? 내 얼굴이 더럽게 비치잖아!” 그러나 실제로 거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얼굴이 더러울 뿐입니다. 좋은 거울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도 죄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롬7:14 -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게 있다!).

2. 율법을 어긴 대가는 죽음이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다고 합시다. 분명 거기엔 처벌이 따릅니다. 만일 부모님이 과속으로 걸렸다고 합시다. 분명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을 보기 바랍니다. 12, 15-17절에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31절에는 죄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공홀이 없는 자들이다.

이 세 절에 당신에게 해당되는 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32절은 이 같은 죄에는 분명히 형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 즉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 형벌로 죽게 되고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 파괴자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복의 말씀으로 다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롬3:23). 복은 사람에게서 떠나고 대신 율법을 어긴 데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소망이 있습니까?

3. 기쁜 소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갈3:13).

이 땅에 있는 모든 범법자들, 즉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어긴 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딤후1:15).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당신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롬6:23). 당신은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4.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젊은 부자 관원(마19:16-22)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다고 합시다(마19:16).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대체로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요3:16; 요6:47). 그러나 예수님은 젊은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앞에 나온 두 답이 모두 맞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는 두 길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명령들을 모두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하나님의 율법을 하루 24시간 평생토록 완전하게 지킴으로).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훌륭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가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그 관원은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마19:17-20). 당신은 정말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관원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명령들을 지키므로 선하다고 생각함으로 스스로 속아 넘어갔고 결국 자신을 정죄에 넣을 정도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함으로 그는 자신의 악한 면을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 이 청년은 범법한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38절에 따르면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유를 더 사랑했습니까(마19:21-22)? 실제로 그는 이 중대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B. 어떤 율법사(눅10:25-29)

이 율법사, 즉 모세 율법의 전문가의 질문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눅10:26-27). 그러자 율법사는 율법의 가장 큰 명령, 즉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라.
2.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라.

그런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두 일을 완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완벽히 사랑하거나 이웃을 완벽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면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갈2:21). 오직 범법한 죄인만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롬3:10)?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두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5.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이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즉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2. 율법의 목적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보여 주는 것이다(죄를 알게 하는 것, 롬7:7-14 참조).

더러운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얼굴에 묻은 것은 죄와 같고 거울은 율법과 같습니다. 거울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그의 더러움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얼굴을 씻으려고 거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은 다만

세수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율법도 이처럼 죄를 씻어야 할 필요를 보여 줍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요1:29). 거울이 우리를 세면대로 인도하듯 율법도 우리를 어린양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갈3:24).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셨습니다(롬8:3). 어린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나 사람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죄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거울은 얼굴을 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여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6. 사랑의 법

마태복음 22장 36-40절에 따르면 모든 율법은 두 가지 간단한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롬13:8-10 참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롬13:10).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고 성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범법자가 아니라 준법자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출20:3)?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겠습니까(출20:4-5)?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겠습니까(출20:7)?

정말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를 죽이겠습니까(출20:13)? 진정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훔치겠습니까(출20:15)? 율법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고 성취됩니다(갈5:14).

너무나 간단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지만 사람에게서는 이런 사랑이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자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스스로 사랑을 행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유일한 분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사랑을 만들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 안에서 걷고 있고(갈5:16)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달려라, 존, 달려! 율법이 명한다!

그러나 내게 발이나 손을 주지 말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훨씬 더 위대한 소식을 다오.

그것으로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리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혹은 어떻게 그 일이 불가능합니까?

제10장

은혜 경륜

이제 우리는 여섯째 경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경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됩니다. 9장까지 우리는 과거에 있던 경륜들을 살펴보았으나 이 장부터는 보통 '은혜의 경륜'이라 불리는 현시대의 경륜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경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현재의 경륜(칭지기직)에 대해 언급합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베드로는 성도들의 칭지기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벧전4:10).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모세에게는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려 주십니다. 현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은혜를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자신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창3:21).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로우셨고(창6:8) 홍수 이후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고 하심으로 전 세계에 자신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창9:11).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침례자 요한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가장 돋보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의 물줄기, 즉 모든 경륜에 걸쳐 면면히 흘러 내려온 물줄기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 은혜의 물줄기는 전에 볼 수 없이 엄청나게 불어나 커다란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은혜는 흐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범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합니다! 현재 우리 주님의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 1:14).

종종 우리는 물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가 불어나 둑까지 범람하게 된다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도 범람한 강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알려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경륜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거둑거둑 다음과 같은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한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여 그녀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니(겔28:22, 23, 24, 26 등)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역사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심판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한 주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이십니다(창50:20). 홍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구원을 보여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줄곧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부요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받아 주시는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 주려 하십니다(엡1:6). 살아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물줄기를 넘쳐흐르게 하여 모든 이가 거기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중요한 단어로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이 은혜는 종종 ‘합당치 못한 자가 받는 호의’라 불리는데 이는 하나님의 호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당치 않은 친절, 과분한 친절,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주어지는 친절’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친절은 결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A. 에베소서 2장 7절 - 문맥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엡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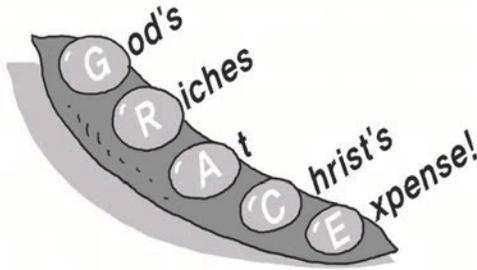
B. 디도서 3장 4절 - 문맥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딤후2:11; 3:7 참조)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은혜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디도서 3장 3절에 묘사되어 있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 왕과 절름발이 므비보셋의 이야기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삼하9장). 다윗 왕은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삼하9:7, 13). 므비보셋은 자기가 그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8절).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

것은 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7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십니다(엡4:32).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은혜로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갈보리 십자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죄인들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심판석 앞에 세워 두고 모두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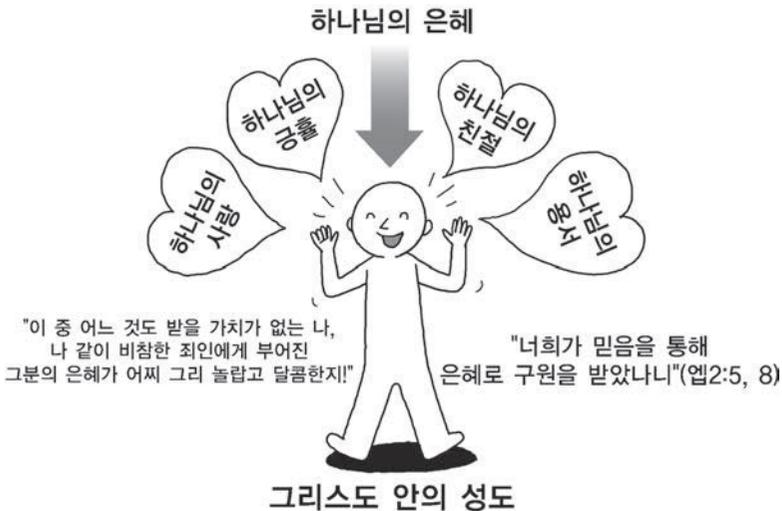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짝값의 지불로 보시고 완전히 흡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부어 주십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내 자리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후5:21)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신의 호의와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은혜 경륜이 시작될 당시에는 죄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유대인 민족의 대부분이 자기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요1:11). 불신과 죄로 눈먼 그들은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은 더없이 암울한 죄의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지 유감없이 보여 주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은혜의 위대함을 보여 주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큼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롬5:20)

이는 율법이 죄를 더 죄 되게 보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의 진상을 낱알이 보여 주는 확대경과 같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이 책의 7, 8장 참조). 율법은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죄로 가득한지 보여 주는 거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넘쳐도 은혜는 그 이상으로 넘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계기로 자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 주십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보석의 아름다움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배경의 선정도 중요함입니다. 보석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배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가 내는 찬란한 빛깔을 드러내시려고 검은 배경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혜가 사람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신 구원자가 계십니다!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자신의 은혜’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롬5:20).

이스라엘이 자기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가 그 끔찍하고 추한 본색을 드러낼 때,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멸하셨습니까? 모두를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계 방방곡곡 누구에게나 그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자에게 나아가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상형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계22:17).

세상이 죄로 인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딤후2:11).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6-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구약 시대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은혜를 대체하는 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는 또한 은혜 위의 은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변에서 '파도 위에 파도'가 부서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의 물결과 같습니다. 파도 위에 파도가 끊임없이 부서지듯 하나님의 은혜도 한량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롬5:17)! 이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주어진 것입니다.

A.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이며(롬3:19), 불순종의 자녀요(엡2:2), 진노의 자녀이며(엡2:3), 죄 가운데 있고(엡2:1), 잃어버린 자들이고(눅 19:20), 선하지 않고(롬3:12), 불의하며(롬3:10)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인입니다(롬 3:23).

이런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딤후1:15).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롬6:23, 롬5:15-18 비교)! 이 선물을 사람이 벌어서 얻거나 사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롬5:15).

2. 사람의 책임

A.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책임

한 억만장자의 손에 지금 백만 불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거절하고 걸어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백만 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롬6:23).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입니다. 한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고 무한하며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어졌네.
그분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자여!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는가?(줄리아 존스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억지로 주시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요1:12). 요한복음 3장 16, 18, 36절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의 책임 혹은 의무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게 주신 명령은 자신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요일3:23). 당신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발견하셨습니까?

B.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

살아 계신 하나님은 친히 놀라운 은혜를 보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사람들과 천사들이 자신의 은혜가 어떠한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산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려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진열장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진열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진열장 위에는 각양 물건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이들은 박물관에 있는 진열장처럼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걸어 다니는 진열장입니다. 비단 지극뻘 아니라 다가올 영원 경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엡2:7).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전시품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혜를 천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력들과 권능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는 교실이고 하나님은 교사이며 천사들은 학생이고 과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이며 학습 목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바로 교회, 즉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고전15:10). 실로 바울은 큰 죄인이었습니다(딤후1:13-15). 그러나 바울에게는 위대한 구원자가 있었습니다(딤후1:15).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딤후1:16). 디모데 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자신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 주는 트로피이다. 내게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리라!

성도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당신 같은 죄인도 분명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로서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행13:43).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은혜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2)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행20:24).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3)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벧후3:18).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벧전2:3). 음식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되면 계속 먹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맛본 것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행20:32).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4) 죄 안에 거하지 말아야 한다(롬6:1-2).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짓고 자기 맘대로 살지 그래요? 그러면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지 않겠어요? 당신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보여 주실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할 이야기입니까(롬6:1-2)?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쨌든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을까요(딤후2:11-12)?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수록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3. 사람의 실패

A.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실패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마7:13-14).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께서 왕과 주님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눅19:12-14).

은혜의 경륜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십니다. 현재 하나님은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그를 쳐서 죽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심판 때까지 오래 참고 계십니다.

무신론자인 잉거솔(Robert Ingersoll)은 강연을 끝낸 뒤 자기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쳐서 죽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에게 5분의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날 내려치고 내 혼을 저주하겠지요” 시계의 초침은 돌아가고 장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긴장하였고 기절할 여인도 있었습니다. 5분이 되자 잉거솔은 재빨리 시계 뚜껑을 닫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내 말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잉거솔이 정말 하나님이 없음을 입증했을까요? 실제 이 불신자가 입증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가 입증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은혜의 경륜에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잉거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사 양반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내를 5분 만에 바닥나게 하리라고 생각했나 보군요.” 이것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판단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다고 은혜의 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잉거솔을 쳐서 죽게 하실 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도 120년 동안 은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창6:3).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120년의 은혜의 기간은 끝이 나고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창7:16).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였느니라(눅17:27).



B. 구원받은 자들의 실패

신자들이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가령, ‘중세 암흑기’ 동안 교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원이 어떤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라는 가르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땅히 ‘은혜의 복음’을 알려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처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종교 단체들이 구원이란 선행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수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은혜의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음을 멸시한 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롬2:3, 5). 그날이 오면 모든 믿지 않는 세상과 한때 진리를 안다고 고백했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고 뒤에 진리에서 돌아서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딤후4:1; 딤후3:5; 4:3-4 참조).

노아 시대에 120년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날은 이보다 더 길지만 - 현재까지 약 2,000년이며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름 - 끝날 때가 올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의 때, 즉 현대의 은혜의 경륜이 끝나면 가장 극심한 심판의 때인 환난기가 닥칠 것입니다. 이런 큰 환난은 전에 있지 않았습니다(마24:21). 12장에서는 이 환난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제11장

교 회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경륜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륜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음 경륜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서서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는 최소한 네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가이시다.
2. 건물은 반석 위에 세워진다.
3. 교회가 바로 그 건물이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건물을 맡아 그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게 지키신다! -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무언가를 짓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무언가를 짓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께 특별한 것이며 그분 자신의 소유입니다(마16:18). 이 건물은 독특합니다.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철근이나 시멘트, 벽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살아 있는 돌들로 지어졌습니다(벧전2:5). 이 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1. 그리스도의 몸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는 건물로 묘사됩니다. 즉 교회는 살아 있는 신자들이 만들어진 건물입니다(벧전2:5). 교회는 건물로 묘사될 뿐 아니라 몸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1. 에베소서 1장 22-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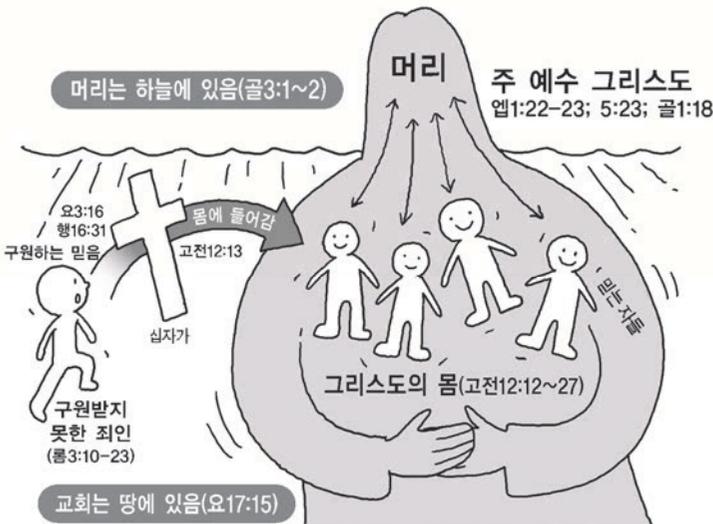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이니라.

2. 골로새서 1장 18절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고전12:27).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골1:18)? 교회는 살아 있는 지체들로 구성된 살아 있는 유기체(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건물의 ‘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둔다(침례의 의미-고전12:13).

이 그림에서 보듯이 머리는 하늘에 있고(골3:1-2) 교회는 땅에 있습니다(요17:15). 교회의 각 지체는 머리와 다른 지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침례의 의미로 보았습니다(고전12:13).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구원자를 믿었습니까? 오늘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교회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2. 성령 강림

교회가 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지어졌을 때 교회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날에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등도 모두 믿는 이들이었지만 교회의 지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교회는 없었습니다.¹⁾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태동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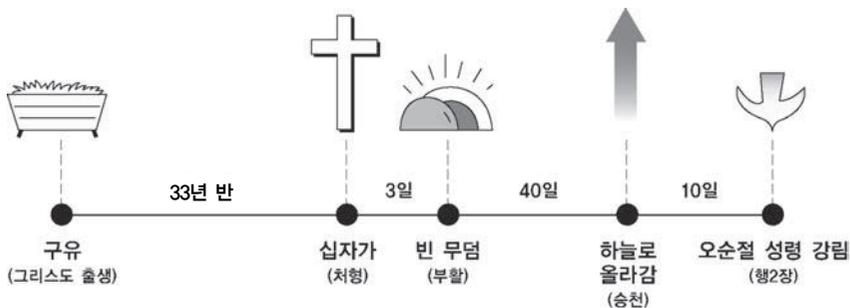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어느 특정한 날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16장을 한번 훑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위로자’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요14:16). 이 위로자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위로자’라는 단어는 ‘돕는 자’란 뜻이며 이 성령님은 ‘당신 편에서 당신을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분’을 말합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불립니다(요14:17). 또 요한복음 14-15장에는 그분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 8, 13절을 보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며(요14:16), 그들과 함께 거하고(요14:16), 그들 속에 내주하며(요14:17)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요15:26), 그들을 인도할(요16:13)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날 교회가 눈에 보이게 탄생하고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믿는 성도 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야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요14:16-17).

성령님은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특히 2장의 첫 부분). 다음 그림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의 시간적 경로를 보여 줍니다.



1)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부터 -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부터 -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듯이 보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바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그 안에 사시게 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날을 기억나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이것은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 불립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요1:14; 딤후3:16).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몸 -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 - 안에 거주하게 되신 날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날은 성령께서 믿는 성도 안에 거주하려 오신 날이고 교회가 태동한 날입니다.²⁾

3. 몸(건물)에 더해짐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120명의 제자들(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드디어 성령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긴 날, 첫 구성원들의 수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즉 120개의 살아 있는 벽돌로 된 교회라는 건물이 섰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였고 많은 백성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 건물에 3,000개의 벽돌이 더해졌습니다(행2:41). 그것으로 교회 건축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믿는 자들을 교회에 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 벽돌이 건물에 더해졌습니다. 즉 새로운 지체들이 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건물에 벽돌을 더하셨습니다(행5:14; 11:24).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건축 계획은 끝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더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2)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되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사도행전 2장(오순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 시제를 쓰셨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치리를 보여 주는 마태복음 18장 15-20절을 인용하며 이때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의 시제도 모두 미래를 보여 주는 will, shall이다(마18:15-20). 그때에는 교회가 아직 없었으며 따라서 이 구절들은 미래의 어느 때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때에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말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 침례가 미래에 있을 것으로 나온다(아직 일어나지 않았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이 침례는 미래의 일이다. 이때에 우리 주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며 며칠 뒤에 이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며칠 뒤에 - 정확히 10일 뒤 - 성령님께서 오셨다(행2). 사도행전 11장 15-17절을 보면 이 침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교회) 안으로 옮기신 때도 바로 이날이다.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 우리는 그때에 교회가 눈에 드러나게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행2:47).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4. 하나님의 신비

에베소서 3장 5-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신비에 대해 썼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상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신비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온 것입니다(엡3:9).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바울에게 알려셨을까요? 아니면 비밀로 하셨을까요(엡3:3)?

한 소년이 주머니 안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것은 그의 주머니에 숨겨진 그 무엇입니다. 소년이 그것을 꺼내 보이기 전에는 아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한 가지 ‘신비’를 갖고 계셨습니다. 즉 아무에게도 말해 주지 않은 무엇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담은 이 신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랬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하나님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를 계시하셨습니다(엡3:3). 오늘날 하나님은 한때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엡3:9).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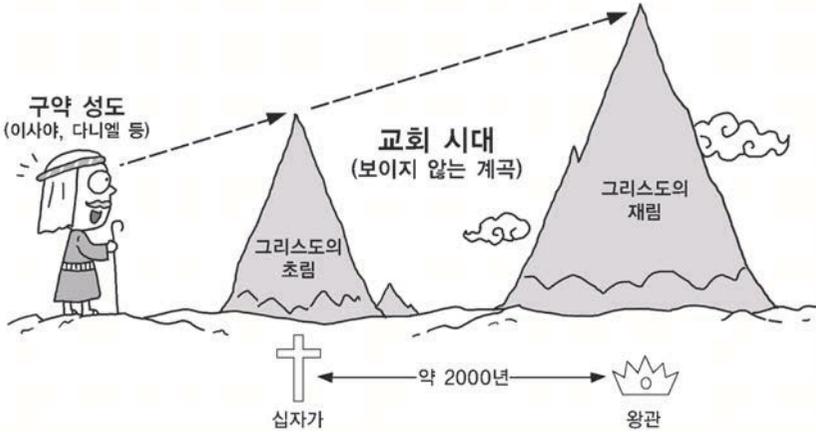
이 놀라운 신비는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한 몸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엡3:6)!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의 몸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27절도 이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은 그 신비가 ‘이방인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골1:27).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살아 계십니다! 즉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립니다(딤후3:15). 하나님께서 거기 사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5. 구약 시대(십자가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

교회에 대한 진실은 이전의 여러 경륜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골1:26). 구약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거하시리라는 내용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느 날 메시아가 죽으시리라는 것은 알았습니다(시22; 사53; 단9:26). 또 메시아가 왕으로 온 땅을 치리하고 다스릴 것을 알았습니다(사9:6-7; 렘23:5-6; 단7:13-14; 미5:2).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산봉우리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처음 볼 때는 분명 하나의 산봉우리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계곡을 두고 두 개의 산봉우리가 겹쳐 보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그는 두 개의 산봉우리,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계곡, 즉 교회 경륜은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계곡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역사(과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언(미래)이 될 것입니다. 그 중간 계곡은 교회 시대 혹은 은혜 경륜 혹은 성령 시대라 불립니다.



6.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습니다? 어디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셨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보이셨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적 현현인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 불리는 이 특별한 장막에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성막을 채우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나타난 곳은 어디이며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집 곧 성전을 채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 불리는 특별한 건물에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셨고 그곳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요2:19-21).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성막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마지막 유대 성전이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 현재 그리스도께서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 줍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성도들)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십니다(엡1:22-23).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딤후3:15)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엡2:22). 현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교회) 안에 사신다면 각 성도 안에도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고전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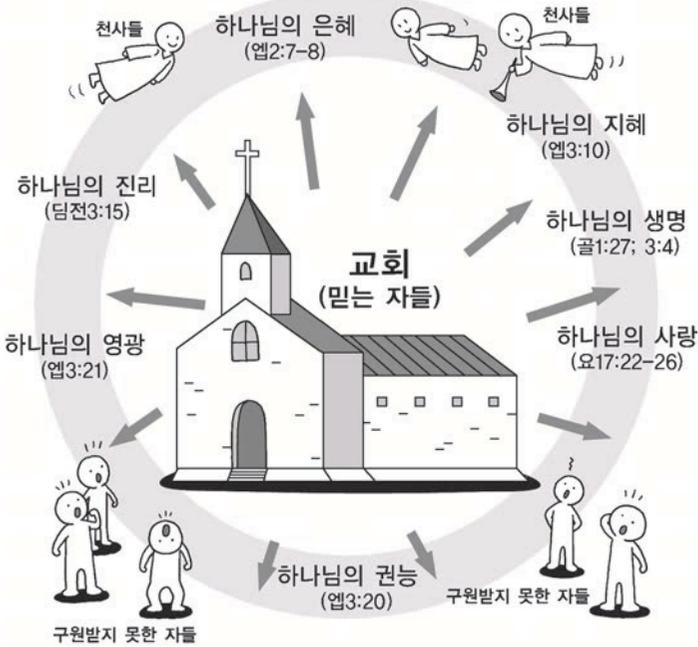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이 사실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까? 그분이 당신 안의 거주자, 즉 당신 마음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이라면 또한 마땅히 그분이 당신의 주인, 즉 당신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 주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살아 있는 몸(교회)을 보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령 당신이 문 밑에서 살랑대는 고양이 꼬리를 본다면 문 건너편에는 고양이가 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믿는 자들)이 바르게 살아 있음을 볼 때 머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있으면 머리도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협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상태로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같이 되어야 합니다. 지체들이 건강할수록 몸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신자가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관한 한 당신은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습니까?



7. 건물이 완공되는 날

오순절 사건이 주후 30년경에 일어났으니 교회 탄생한 지 거의 2,000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줄곧 자신의 교회에 사람들을 더해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벽돌’이 놓이는 순간 건물은 완공될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의 마지막 지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날, 무언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흔히 ‘휴가’라고 불리며 이것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요14:3; 고전15:51-52; 살전4:13-15; 딤펢2:13). 이 놀라운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교회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교회의 ‘첨탑’을 올리는 단계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첨탑이 서게 되면 교회는 완성되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의 지체입니까? 구원받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은혜의 경륜인 오늘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요일2:28)?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위해 오신 다음 세상에는 곧 7년 동안의 환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대해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는 하늘에 가지만(요

14:1-3; 계3:10) 그렇지 않은 자는 온 땅에 다칠 환난의 때에 들어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8. 교회에 대한 부가 설명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말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17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종교적 모임이나 일반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2, 39절 등에서는 ‘무리’ 혹은 ‘집회’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대개 종교적 예배자들의 지상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심지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모임도 광야의 교회라 불렸습니다(행7:38). 물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마16:18; 고전6:4).

대부분의 신약 성경 용례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뜻합니다. 또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하였고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교회 등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가 다 지역 교회(Local church)였습니다.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Universal church),³⁾ 즉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도 몇 군데 발견됩니다(엡1:22-23; 히12:23 등).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했을 때 이것도 전 우주적인 교회, 즉 그분의 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전 우주적인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지역 교회의 모임과 제도를 모두 무시하는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큼니다. 즉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며 주일에도 강이나 바다나 산에 가서 놀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보편적 교회론을 펴면서 심지어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 ‘전 우주적인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가르치지 않거나 성경에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우주적 교회는 없고 오직 지역 교회만 있다고 주장합니다.⁴⁾

3) 여기서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을 뜻하는 ‘Universal’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카톨릭’(Catholic)으로 표현되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말하는 ‘자기들만의 유일한 카톨릭교회’와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카톨릭’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여 서로 다른 것을 뜻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요한일서 같은 일반 서신을 영어로 ‘Catholic epistles’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결코 이런 서신들이 천주교회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지역과 출신 배경,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서신을 뜻한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금 이것들은 ‘일반 서신’(General epistles)이라고 불린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역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를 뜻하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4) 역사를 통해 교회 문화가 정착되면서 현대에는 교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2-13).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 침례는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이미 구원받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침례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처음의 120여 명의 경우에는 구원과 성령 침례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건전한 세대주의자들은 변천기의 특징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오순절 이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오순절 이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취급할 수 없고 이것을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은 변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변천기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침례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지역 교회와 전 우주적 교회가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지역 교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 자체가 이미 교회였으며 따라서 성령 침례가 교회에 속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은 모든 신약 교회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고린도 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령 침례를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교회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만을 주장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명백한 진리, 즉 성령 침례를 통해 그분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지역 교회를 주장하고 오순절 이전의 교회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어떤 하나에 집착하여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않으려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교리도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해야 하고 다른 교회에는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장을 펴기 위해 이렇게 보편적인

처음에는 이 땅의 지역 교회에 거의 100% 믿는 사람들만 존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의 교회는 여기에서 설명한 '성경적 의미의 교회'가 아니다. 성경에 정의된 교회는 지역 교회든 전 우주적 교회든 모두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원칙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는 데는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존한다.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에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성도들은 초기부터 100% 믿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지역 교회를 형성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천주교회 같은 제도권 교회에 의해 이단이라 불리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의 한계로 인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자들도 버젓이 믿는다고 고백하며 정식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많은 경우 지역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에 전 우주적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곧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먼저 오순절 날 베드로의 말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 즉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에게 - 더해졌다고 기록합니다(행2:41). 교회에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고 기록합니다(행2:47). 즉 120여 명과 3,000명이 교회를 형성한 이후에 드디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기록된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 우리는 변천기를 인정하면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침례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성경에 언급된 교회의 대부분이 지역 교회이지만 여전히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음을 인정하되,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이루어야 할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고 지역 교회이므로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는 지역 교회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고전12:13, 27-28; 참조 엡1:22-23; 5:30-32; 골1:18). 물 침례를 받아 교회(그분의 몸)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옵니다. 물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교회의 출생에는 반드시 성령 침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침례자 요한에 의해 처음 예언되었습니다(마3:11; 막1:8; 눅3:16; 요1:33). 그는 자신은 물 침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성령 침례가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고 부활한 뒤 승천하기 바로 전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여전히 성령 침례가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때까지는 변천기에 있던 120명을 - 이들은 예외였습니다 -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의 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고전12:13). 이때에 주님은 며칠 지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실제로 10일 뒤에, 오순절에 그 일이 발생하였지만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침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가 성령 침례를 받았으며 그와 동일한 일이 오순절에 발생했음을 보여 줍니다(행11:15-16).

교회의 출생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만 가능함을 보여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23절이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에 생길 수 없습니다(요7:39).

지역 교회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은사)이나 특권을 발휘합니다(행2:41-42; 20:17-28; 고전11:2).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체 사회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롬15:26). 지역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 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습니다. 교회의 유일무이한 감독자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법정에서 서로를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고전6:1).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믿음의 수호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이런

협력의 분량이나 방법은 각 지역 교회의 권한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회원 문제, 정책 문제, 행정, 양육, 자선 등도 각 지역 교회가 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요, 순례자요, 대사요, 증인이 됩니다(고후5:18-20; 벧전1:17). 그리고 그들의 삶의 첫째 목적은 선교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마28:18-19; 막16:15; 요17:18; 행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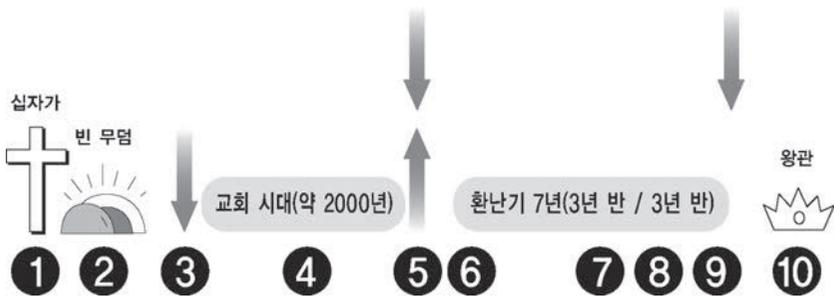
지역 교회의 직분에는 목사⁵⁾와 집사가 있으며 그들의 자격이나 요건 그리고 의무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딤후3:1-13; 딤후1:5-11). 또한 교회에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두 규례만 있을 뿐입니다.

5)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사람이 맡는 다양한 직분을 가리킨다.

제12장

환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신 직후에 환난기라고 알려진 7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7년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레’(단9:24-27)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한 주는 7일이 아니라 7년입니다. 이 7년의 후반부 3년 반은 종종 대환난기로 불리는데(마24:21) 이는 그때가 세상이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기가 끝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생깁니다(마24:29-30). 도움을 위해 다음 그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위 그림에 나오는 번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아래에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죽음(롬5:8; 고전15:3; 벰전3:18)
2. 그리스도의 부활(롬1:4; 고전15:4)
3.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
4. 현재의 교회 경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불러내고 계심(행15:14).
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교회는 ‘채여 올라가’, 즉 휴거되어 공중에서 서로 만나는 때(살전4:13-18): 이 사건은 교회의 휴거라 불리며 교회 시대의 종지부이다.
6. 환난기 혹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레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모종의 언약(협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된다(단9:27).
7. 7년 중간에 이 언약(협약)이 깨어지고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단9:27; 마24:15-21; 살후

2:3-4).

8. 예수님께서 ‘큰 환난’(마24:21)이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3년 반: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되며(계12:2-12) 사탄의 사람(죄의 사람)이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계13:1-10).
9. 환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오심으로 끝날 것이다(마24:29-30; 계19:11-16).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 왕국 기간으로 불린다(계20장).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환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요한계시록 4-9장이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환난기가 있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일들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8장 7-12절에 등장하는 심판이나 역병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직 세상은 이런 역병을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성전에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았습니까(계13:1-12)? 온 세상이 한 사람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었습니까(계13:14-15)?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없이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던 때가 있었습니까(계13:16-17)?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앞 단락 첫 부분에 나왔던 성경 말씀들은 모두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분명히 아직 땅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래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환난기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30절에는 이 환난의 시기가 끝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면 당연히 환난기도 미래의 일입니다.

이 환난의 때가 어떻게 다른 경륜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7년 환난기는 대개 독립된 경륜 혹은 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7년은 정확히 은혜 경륜과 왕국 경륜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대개 성도들은 이 7년 환난기를 은혜 경륜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환난기와 다른 경륜과의 조화

환난기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7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환난기가 어떻게 다른 일곱 경륜과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봅시다.

A. 무죄 경륜

무죄 경륜 동안 우리는 사람이 최상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결백하고 죄가 없는 존재로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달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환난기 동안 우리는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기는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살후2:7).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한 세상을 향해 진노를 부으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계9:20-21; 16:9, 11).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한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은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7년에 이르게 될 즈음에는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땅에서 날뛸 것이고(계12:12)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지만(렘17:9) 특히 환난기 동안 하나님은 이 사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기 동안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B. 양심

성경은 양심 경륜에 살았던 사람들과 환난기 후반부에 살게 될 사람들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마24:37).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양심 경륜 시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게 될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양심 경륜에서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고가 됩니다.

노아의 날	환난기
사람의 사악함이 크게 됨(창6:5).	사람의 사악함이 매우 크게 됨
사람들은 일상사를 계속함(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등등).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음(마24:38).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경건하게 살 것임.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할 것임.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마 24:39)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홍수).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고(그리스도의 재림) 사람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마24:40-41; 눅17:30-37).

C. 인간 정부

환난기 동안 세상은 인간 정부의 최악의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람이 지배하는 단일 세계 정부입니다. 바벨탑 사건(창11)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자 했던 것을 배웠습니다(창11:6). 주님은 죄인들이 모여 연합하게 되면 넘쳐나는 악을 막을 도리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땅의 여러 곳으로 흩으셨습니다. 이리하여 여러 민족이 탄생되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있어도 별 탈이 없었던 것은 민족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특정

지배 민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함께 연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데 이는 모든 권력이 한 명의 사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처럼 바벨탑의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일을 허락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죄인들이 바벨에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 드디어 환난기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바벨에서는 실패했지만 환난기에는 마귀의 사람(죄의 사람)의 손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세계 통치자가 요한계시록 13장 1-10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짐승'이라 불립니다. 마귀가 이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할 것입니다(계13:2; 12:9).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라며 경배할 것입니다(계13:3-4). 누가 능히 이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계13:4)?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계 13:8, 15). 이 자는 강력한 권력으로 세계 경제를 주무를 것입니다(계13:16-18)!

하나님은 자신이 땅을 다스리시기(천년 왕국 경륜) 전에 이 사람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단일 세계 정부가 이 사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단일 세계 정부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나 표적들이 많습니다.

D. 약속

7장에서 공부하였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결국 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기 동안에 우리는 유대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셔서 환난이 끝날 즈음에는 이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은 환난기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야곱에게서 나온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통치자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들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슬프도대! 그 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30:7).

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로, 마귀는 무시무시한 '용'으로 등장합니다. 환난기 동안 용은 여자를 핍박하려 합니다(계12:13). 그러나 용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여자를 보호합니다(계12:14-17).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다(요1:11). 그러나 환난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세상에 임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초림 때처럼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그분께 돌아가 구원을 받습니다(슌12:9-11; 롬11:26-27). 환난기의 어려운 날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특별히 일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E. 율법

환난기 동안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어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8절에 따르면 환난기 동안 세상은 불법과 무법의 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통치자는 '저 사악한 자' 혹은 '저 무법한 자'로 불립니다. 미래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철저히 짓밟을 것입니다.

율법의 첫째 및 둘째 명령은(출20:3-5) 하나님 자리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우상, 형상, 성상이나 거짓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함으로써 이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출32).

환난기에 사람들은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과한 자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살후 2:4).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사람의 형상이나 동상이 굉장하게 세워질 것입니다(계13:14-15). 이 형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자는 모두 죽게 됩니다(계13:15). 땅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경배하게 됩니다(계13:8).

F. 은혜

환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세상에게 부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위대한 은혜의 때, 즉 현재의 교회 경륜 뒤에 곧바로 큰 심판의 때(7년 환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때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과 역병이 세 형태로 나옵니다.

1. 일곱 봉인 심판(계6; 8:1)
2. 일곱 나팔 심판(계8; 계9; 11:15)
3. 일곱 금병 심판(계16)

이 끔찍한 심판들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보내신 역병을 떠올리게 합니다(출6-12장). 단 차이가 있다면 모세 때는 역병이 이집트 땅에만 임했지만 환난기에는 그것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할 것입니다(계3:10). 역병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깨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계9:20-21).

비록 환난기가 심판의 때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에도 한 줄기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고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환난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는 적어도 144,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계7:4). 9절에는 또 다른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몇 명입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기간에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14절). 환난기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때에는 다시 왕국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마24:14).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천사까지 동원될 것입니다(계14:6-7).

G. 왕국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마지막 경륜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환난이 끝나면 왕께서 땅 위에 직접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마24:29-30).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끝나면 가장

복된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폭풍우가 다가오면 사방은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폭풍이 금방 지나가서 해가 나고 고요함과 평온이 천지를 감싸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는 무지개도 보입니다. 환난기라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 지구의 모습도 이리할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 나올 것입니다(말4:2).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복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놀라운 때가 될 것입니다. 최악과 최선이 교체되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마6:10).

2. 특별한 고통의 때

환난기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여러 번 어려운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전쟁(세계 대전을 포함하여), 극심한 질병, 박해, 독재자의 폭정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해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이제껏 겪었던 것이 보통 회오리바람이었다면 이번엔 초강력 회오리바람입니다!

여기 환난기가 유례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1.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30:7).
2.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유대인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단12:1).
3.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마24:21).

3. 환난기는 잠시 동안이다

이 엄청난 환난기에 대한 내용 중 그나마 가장 좋은 소식은 이 시기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은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환난기 동안 땅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늘리지 않고 단축하실 것입니다(마24:22).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곧 끝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갈 때에 큰 환난이 시작된다면 졸업하기 전에 그것이 끝날 것입니다.

A. 환난의 기간

다니엘서 9장 25-27절은 70이레에 대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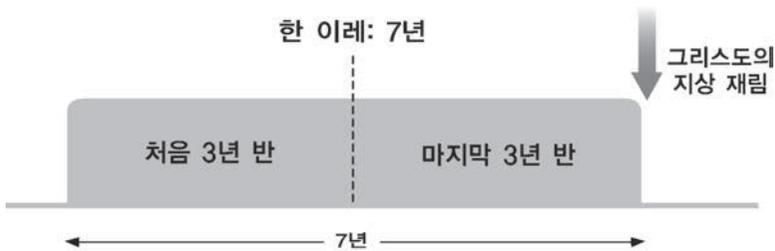
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²⁷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서 27절은 ‘한 이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이 한 주는 매우 특별한 주간입니다. 보통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한 한 이레, 즉 한 주는 7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를 일 년으로 계산한 일주일을 말했습니다. 결국 7년이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7년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 이레의 한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주간의 길이가 7년이라고 할 때 그것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3년 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큰 환난의 기간은 후반기 3년 반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 기간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3년 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3년 반의 기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 1,260일(계11:3; 12:6)
2. 마흔두 달(계11:2; 13:5)
3.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며 반 때는 반년이므로 모두 3년 반이다.
4. 짧은 때(계12:12)

B. 환난기의 주요 인물

환난기를 주도하는 주연급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죄의 사람(짐승 혹은 적그리스도라 불림, 계13:1-10; 살후2장)
- 거짓 대언자(둘째 짐승으로 불림, 계13:11-18)
- 용(혹은 마귀, 계12장)
- 심판자 하나님(계6, 8, 9, 16장)
- 이스라엘 민족(혹은 여자, 계12장)
- 세상의 여러 나라들(속12:9; 14:2)
- 오실 왕(계4-5장; 19:11-16)

환난기 동안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세상에 임할 환난과 고통의 때로부터 교회를 때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뒤 요한계시록 4-19장까지는 환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없으므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계4-19장). 물론 ‘교회’라는 단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환난기 전에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C. 두 가지 실례

1. 에녹의 예(창5:21-24; 히11:5) - 에녹은 심판(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땅에서 옮겨졌다. 에녹은 오늘날을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의 지체들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옮기실 것이다.
2. 노아의 예(마24:37-41) - 노아는 심판(홍수)을 통과하고 살아남았다. 이런 면에서 노아는 환난기 동안 구원받고 살아남아 본래의 몸으로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예표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셨다.

4. 이때에도 소망이 있는가?

휴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휴거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 번 구원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이후에 다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한 근거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을 듭니다. 그들은 휴거 이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만 환난기 동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은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휴거 이전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기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고의로 죄의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살후2:3-9).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 즉 죄의 사람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죄의 사람에게 경배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계14:9)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계14:10-11). 환난기 동안 의도적으로 죄의 사람에게 자신을 내맡긴 자들은 모두 심판과 정죄를 받습니다(살후2:12). 결국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의 등장인물들은 흑과 백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때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든지(계14:6-7), 죄의 사람에게 경배하든지(계14:9-11)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신중히 기억해야 합니다.

1. 인류 역사의 어느 때를 살든지 진리를 거절하면 매우 위험하다.
2. 구원의 때는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으려 하는데 내일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3. 오늘날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렵지 않은 때, 즉 핍박이 거의 없는 때에도 안 믿으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려운 때, 즉 믿는 자들이 극심한 핍박을 겪는 환난의 시기에 믿으려 하겠는가?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다 순교할 것이다. 오늘 복음을 거절하면 내일도 그럴 것이다. 휴거 이전에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장차 환난기 때 죄의 사람에게 경배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의 불신자는 대개 내일의 불신자로 남기 때문이다.
4. 우리는 한때 진리를 강력히 거절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다소의 사울을 생각해 보라!
5.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앞에서 배운 환난기가 바로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휴거는 우리가 사는 현시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곧장 환난기가 시작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믿는 이들에게 오신다면(요14:3; 살전4:13-18) 당신도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에게 찾아가기 바랍니다. 그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왕국 경륜

이제 우리는 일곱 경륜 중 마지막 경륜을 공부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마6:10).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입니다(계11:15). 그때는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마6:10). 오늘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고 장차 땅에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 왔습니다. 전쟁도 범죄도 굶주림도 질병도 없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은 10년 내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앞 장에서 우리는 유례없는 고통의 때, 즉 환난기(마24:21)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지난 뒤에 최고의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고통의 환난기가 끝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마24:29-30). 이것은 ‘더 나은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전에 없던 복과 번영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천년 왕국은 어떨까요? 오늘날에 비해 그 상태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미래 왕국에 있을 생명은 어떨까요? 이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왕국 기간에 있을 일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속14:9).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이 왕을 섬깁니다(단7:14).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사2:3). 왕국 시대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정부는 ‘신정 정치’ 형태,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오르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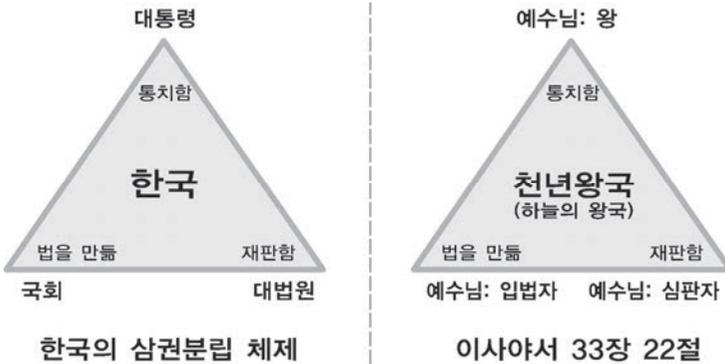
B.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다

역사를 통해 악명 높은 통치자들(헤롯 대왕, 히틀러 등)이 있었습니다. 다수가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교활한 야심가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나 대통령이라 해도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왕국 경륜에서는 완전한 통치자가 다스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재판자시요, 주께서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사33:22).

그분은 완전한 재판관(대법원장)이요 완전한 왕(대통령)으로서 완전한 법(국회)을 제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을 겸하게 될 것입니다!



C.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공평과 의로 다스리신다

왕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사11:4-5). 왕의 말이나 행동은 항상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D. 땅에 평화가 있다

그분께서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 도다(시46:9).

지금도 그렇습니까? 왕국 경륜 동안에는 군대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사2:4). 전쟁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될 터인데 이는 평화의 통치자(사9:6)께서 왕좌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E.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과 그분의 어떠한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 시대에는 달라집니다. 그때에는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자신이 땅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것입니다(사2:3). 거짓 종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 가르쳐집니다. 모든 사람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선교사가 없습니다(렘31:34). 온 세상이 주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사11:9). 오늘날에도 그렇습니까?

F. 사탄이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다

계시록 20장에는 왕국 시대가 1,000년 동안 지속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00년이라고 기록된 구절을 적어 보기 바랍니다. 모두 여섯 번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왕국 경륜은 종종 ‘천년 왕국’으로 불립니다. 이 1,000년 동안 마귀는 ‘바닥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계20:1-3). 마귀는 천년 왕국 내내 ‘감옥’에 갇혀있을 것입니다. 왕국 시대 동안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적용됩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 이후로 사탄은 줄곧 이 땅에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왕국 경륜 동안에는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 척박한 땅이 비옥하게 된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은 광야(사막)가 옥토가 되리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새로운 광경이 이사야서 35장 1-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짙이 나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많은 양의 물을 대실 것입니다(사35:6-7).

H. 질병과 아픔이 사라진다

오늘날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이나 질환이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4:23-24). 장차 올 왕국에서는 “내가 병들었노라!”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사33:24).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사29:18; 35:5-6). 오는 왕국의 백성들은 놀라운 건강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I.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약 1,000살까지 살게 됨)

지금 당신은 100살 된 사람을 아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노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왕국에서는 100세 된 사람이 아이라고 불립니다(사65:20)!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게 됩니다(사65:22). 많은 나무들이 몇백 년이나 되는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매우 깁니다. 물론 왕국 경륜 동안에도 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형으로 벌하시겠지만(사65:20) 왕을 거역하거나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천년 왕국 내내 살아 있을 것이며 그들의 수명은 969세를 산 므두셀라처럼 길게 될 것입니다(창5:27).

J.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1장 6-9절과 65장 25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짐승들도 이렇게 유순합니까? 만일 지금 이리와 양을 함께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독사와 어린아이를 함께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짐승 세계도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왕국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왕국이고 왕국이 교회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순 없습니다. 이제껏 성경이 말하는 왕국 경륜의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다스리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2. 왕국 경륜과 다른 경륜들과의 관계

그러면 이 왕국 경륜이 다른 여섯 경륜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비교해 봅시다.

A. 무죄 경륜

무죄 경륜과 왕국 경륜은 여러 면에서 흡사합니다. 두 경륜 모두 사람이 놀라운 세계, 이상적인 환경을 누립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이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어쨌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장차 왕국에 살게 될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세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최악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왕국 경륜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왕국 경륜 백성들도 아담과 이브에게 없었던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곧 사탄의 활동이 그 시대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계20:7).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B. 양심 경륜

양심 경륜에 사람들의 사악함이 커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창6:5). 그러나 왕국 경륜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의가 온 땅에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사11:4-5). 왕의 다스림으로 공개적인 반역이나 사악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C. 인간 정부 경륜

왕국 경륜에서는 최선의 정부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이상적인 왕이요 완전한 통치자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이제껏 어디에도 완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인간 통치자들은 늘 실패만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해낼 것입니다.

D. 약속 경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나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왕국 경륜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성취됩니다. 약속대로 왕국 경륜에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된다(창12:2).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창12:2).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한다(슥8:23).
-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된다(창15:18).
- 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계의 수도가 된다(사2:1-3).

이외에 예레미야 31장 31-34절(새 언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실 복이 나와 있습니다.

E. 율법 경륜

왕국은 법이 없는 경륜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격한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왕국 경륜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첫 세대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마25:34). 그러나 이 기간에 거기서 태어나는 세대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렘31:33).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위한 마음을 갖고서 바른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 경륜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다수가 길으로는 법을 따르는 척하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에서 따르지 않고 법을 어겼을 때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따릅니다. 왕국 경륜에서도 다수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천 년이 끝난 뒤에야 드러납니다(계20:7-9).

F. 은혜 경륜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그리스도)은 그때에도 자신의 죽음의 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슌12:10; 13:6; 요20:25-27). 이로써 사람들은 인류의 죄를 위해 드러진 은혜의 희생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념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은 짐승의 희생을 다시 드릴 것입니다(겔40:39-43; 43:18-25 등).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렘31:34).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의 지체들을 자신의 은혜의 트로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엡2:7).

한마디로 왕국 기간은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구현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쟁과 범죄, 질병, 가난의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세상은 의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정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3. 왕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¹⁾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1)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왕국을 주러 왔으나 그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온 민족이 그분을 거절하였다. 이에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여러 차례 저주하신 뒤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까지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뒤 24장에서 제자들이 나아와 세상 끝의 표적들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그분은 24장과 25장에서 천년 왕국 바로 전에 있을 대환난과 민족들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셨다. 즉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는 24장의 대환난 이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가리는 심판에 대해 말한다. 이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첫 사람 아담의 육신을 입은 채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낳는다.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마25:34).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1-42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사악한 자들이 땅에서 쫓겨나 불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남아 왕국의 일부가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들입니까? 불의한 자들입니까(마13:43)? 마태복음 13장 49-50절은 천사들이 의인들과 악인들을 가려내어 악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상고해 보면 왕국이 시작될 때 땅에 남은 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멸절되고 의인들(구원받은 자들)만 남습니다.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4. 사람의 책임

천년 왕국 시대에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천 년이란 기간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 성년이 되고 엄청난 인구를 이루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아기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지만 왕국 시대에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아기들이 태어나고 자라나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세대(부모)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둘째 세대(자녀들)가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날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자녀들도 믿는 자로 태어납니까? 구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요1:13). 물론 부모가 자녀들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칠 수는 있지만 믿는 것은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성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와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 51:5).

이제껏 태어난 모든 아이들 -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 은 모두 아담의 사악함과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구원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타고납니다. 왕국 경륜에 태어난 아이들도 이처럼 사악하고 죄악으로 찬 마음을 타고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행16:30-31). 마찬가지로 왕국 경륜에 태어날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왕을 신뢰하고 왕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중 여럿이 그리스도를 믿겠지만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께 순종하고 그의 규정에 따르나 속으로는 왕을 반대할 것입니다(막7:6). 이들은 왕

앞에서 무릎 꿇을지도 모르나 마음은 여전히 꼴꼴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가끔 부모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지만 사실 체벌이 무서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부모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마음의 자세입니까(시51:6)?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치 않으면서도 왕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권능 때문에 감히 불순종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적대감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왕을 존경하고 섬기며 왕의 명을 따르는 척합니다.

5. 사람의 실패

왕국 시대에도 공개적으로 그릇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신속히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다(사65:20).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자들을 왕은 즉시 벌하지 않습니다(슌14:16-17). 왕국 경륜에서는 불순종의 대가를 즉시 치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천 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타납니다. 천 년이 다 차서 만기가 되면 하나님은 사탄을 다시 풀어 줍니다(계20:7). 그러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릅니다(계20:8). 이 마지막 대반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사람이 바닷가의 모래를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천 년이 끝난 뒤 사탄을 따르게 될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계20:8)? 감옥에서 풀려난 사탄은 악으로 치우치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이용해 간단히 왕께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도록 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 오히려 그들은 천 년이 끝날 때 죄로 가득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맙니다. 반역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이 기회를 얻어 밖으로 표출되고 적나라하게 그 진상을 드러내고 맙니다. 사람의 죄성이 완전히 노출되고 빛에 의해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6.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곧장 처벌을 받습니다(계20:9). 하나님께서 즉시 이 반역을 간단하게 평정하지만 반역의 대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인 마귀는 불 호수로 던져집니다(계20:10). 마귀는 자신의 영원한 처소로 들어갑니다(마 25:41).

이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 심판: 옛 하늘과 땅은 타서 없어진다(벧후3:10-13; 계20:11).
2. 크고 흰 왕좌 심판: 이때 모든 경륜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부활하여 자기들이 거절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계20:11-15).
3. 새 하늘과 새 땅: 이로써 경륜들이 모두 끝나며 이때부터 영원한 세계이다(계21-22장).

7. 주요 교훈

A.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사람은 항상 자기 문제를 남 탓 혹은 환경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이브는 뱀 탓을 했고(창3:13) 아담은 이브 탓을 했습니다(창3:11-12). 과오를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왕국 경륜에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며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을 사회에다 돌립니다. “필요한 건 이게 전부야. 가난을 없애고 나은 주거 환경을 구축하며 질병과 범죄를 추방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완전한 환경만 조성할 수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본래 선한데 사회 환경이 사람을 그 모양으로 만들고 말았지.”

왕국 경륜에서 사람이 사회를 탓할 수 있습니까? 정부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때의 정부가 완전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최고의 교육 환경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데 이는 온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사11:9). 사탄을 걸고넘어질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의 활동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왕국 경륜에서는 비난의 화살이 오직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B.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다

왕국 경륜에서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진리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

사람의 문제는 마음입니다!

왕국 경륜을 공부하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최선의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의복, 주거 환경, 게다가 질병도 없고 최고의 교육과 이상적인 사회 이 모든 것을 합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왕국 경륜도 여느 경륜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을 맡기게 되면 외적인 문제나 환경도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되면 제아무리 삶의 환경이 좋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최악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시다!

왕국 경륜에 접어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심이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회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정부도 구원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필요를 채우는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반역(계20:7-9)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의 구원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이고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다!

원인은 죄에 있고 해결책은 그리스도께 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에 구원의 일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까?

8. 왕국에 대한 부가 설명

오늘날에는 성경의 예언들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 파괴될 때 모두 성취되었다고 잘못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모두 과거의 일로 여기고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을 다룰 때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들은 과거주의자들(Preterists)이라 불립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王權)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16:28).

위의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왕국에 임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과거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후 70년에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주후 70년에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열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직접 땅에까지 내려오시므로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마24:25-30; 계1:7).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2.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자기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사43:5-7; 렘16:14-15; 23:7-8; 31:7-10; 겔11:14-18; 36:24; 마24:31).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3.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땅에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시46:9; 사2:4; 미4:3; 스9:10).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4.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왕국이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행1:6). 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사9:7; 렘17:25; 23:5-6; 33:15; 호3:4-5; 암9:11-15; 눅1:32-33).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어떤 왕도 왕좌에 앉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5.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크게 구출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렘30:7-9; 겔34:25-31).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40년 전에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큰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6.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소, 즉 그분의 성전이 그분의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겔37:26-28; 40:5-43:27).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성전은 파괴되어 그들은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7.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짐승의 희생을 다시 바치게 됩니다(겔44:1-46:24).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짐승의 희생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8.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열두 지파의 수대로 열두 개로 나누어 소유합니다. 물론 이렇게 열두 지파별로 나누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나눈 것과는 다릅니다 (Arnold G. Fruchtenbaum, *Footprints of the Messiah*, p. 328). 왕국에서 열두 지파가 차지할 몫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지파는 성전의 북쪽을 차지하고(겔48:1-7) 나머지 다섯 지파는 남쪽을 차지합니다(겔48:23-29).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살아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거나 온 세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그 뒤 1,900여 년이 지나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유대인 국가를 세웠습니다.
9.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사52:7-10). 이 메시지는 평화의 소식과 메시아가 시온에서 통치한다는 소식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소식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축하셨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 나쁜 소식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심판과 파괴와 멸망과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사35장). 이때에는 사막이 옥토가 되고(1-2, 6-7절)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며(3-4절) 다리를 절거나 못 보거나 못 듣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5-6절) 들짐승이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9절)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의 침략에서 겨우 벗어난 유대인들마저도 기쁨과 즐거움 대신 슬픔과 한숨을 갖게 되었습니다(사 35:10 비교).

마태복음 16장 28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17장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며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왕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을 목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16-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변형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변형은 실제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권능 있게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일을 예표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제14장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살다 보면 구분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어떤 것들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뱀은 다 그제 그거라고들 하지만 물려도 무해한 누룩뱀과 치명적인 방울뱀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 같은 버섯이라 하더라도 버섯을 따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독버섯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미국)는 여러 전쟁을 겪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각각의 전쟁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면 그의 역사 점수는 안 봐도 뻔합니다. 전쟁들은 각각 다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장소도 다릅니다.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적들도 다 다릅니다. 미국은 한 번은 영국과, 한 번은 독일과, 한 번은 일본과 싸웠습니다. 각 전쟁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전쟁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혼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며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인식한 데 있습니다. 즉 차이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주제를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고전14:33). 이 주제에 대해 성경은 혼동이 아니라 명백한 빛을 던져 줍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나라가 싸웠던 각 전쟁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놓은 역사책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초림과 재림 주제를 조심스럽게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보리로 가시기 전날 밤 주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3). 주님은 한 번 오셨으나 또다시, 즉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신다고 가르칩니다. 초림은 지나간 역사이고(이미 이루어졌음) 재림은 미래입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았음). 오늘날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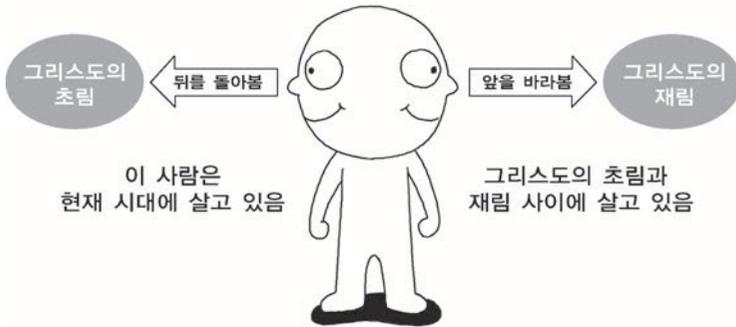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있는 지 40일이 지난 뒤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행1:9). 예수님께서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표시입니다. 그다음 나타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알려 준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행1:10-12)?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처음 오셨고 또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11절로 본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그분은 위로 가셨다.	그분은 아래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땅을 떠나 하늘로 가셨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 땅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구름 가운데서 올라가셨다.	그분은 구름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부활한 실제 몸을 입고 가셨다.	그분은 부활한 실제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그분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그분이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로 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늘에서 다시 오실 분은 동일한 예수님이시다.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신 동일한 분이 다시 땅으로 오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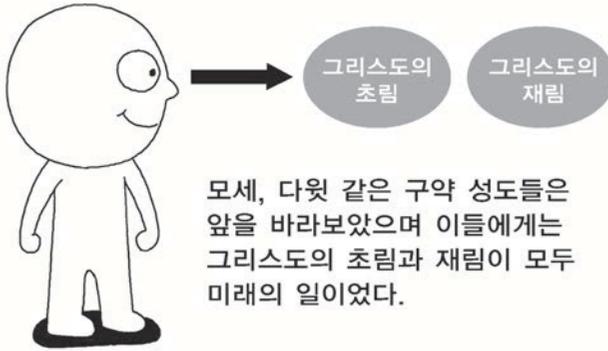
A.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은 뒤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이사야 당시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되돌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그리스도)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영광의 왕이요 온 세상을 다스릴 자로 묘사한 구약 말씀도 있고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혼동하게 되고 이 말씀들이 마치 두 인물을 묘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모세, 다윗 같은 구약 성도들은
앞을 바라보았으며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모두
미래의 일이었다.

다음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프루텐바움(Arnold Fruchtenbaum)이 쓴 글입니다(*Jesus Was A Jew*, 23-24쪽).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해하기 힘든 패러독스에 사로잡힙니다. 즉 거기에는 알기 어려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대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두 종류의 예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편으로 수치를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결국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 대언자들은 이 죽음이 유대인들의 죄들로 인한 대신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모두 쳐부수고 승리하는 왕으로 임하여 평화와 번영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모습의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의 두 즐거입니다. 탈무드를 만드는 동안 우리 유대인 랍비들은 메시아 예언에 대해 많이 연구했고 “대언자들이 두 명의 메시아에 대해 선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Mashiach ben Yoseph)라 불렀고 첫째 메시아 이후에 왕으로 오는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Mashiach ben David)라 불렀습니다. 이 둘째 메시아는 첫째 메시아에게 생명을 주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웁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 성경이 이처럼 메시아 예언의 두 즐거기를 보인다는 것만을 인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 명의 메시아가 있다고 분명히 보여 주지 않습니다. 사실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동일한 부분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예언들이 모두 한 메시아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랍비들은 두 명의 메시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두 메시아가 있지 않고 동일한 메시아가 두 번 오십니다.

- (1) 초림 -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분으로 나옵니다.
- (2) 재림 -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릴 영광의 왕으로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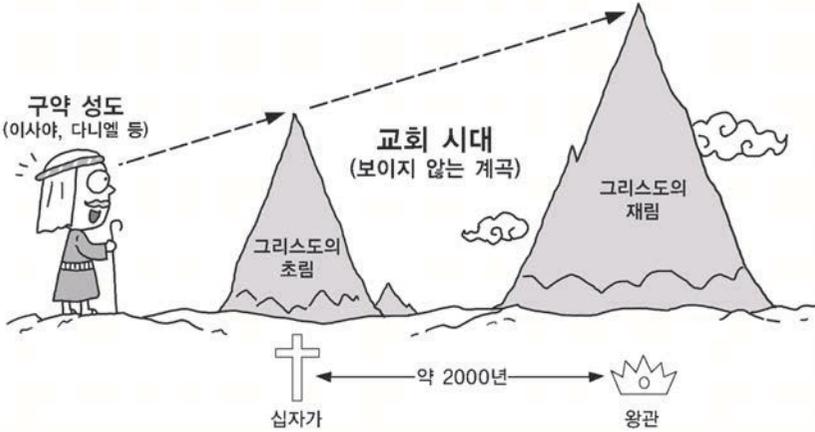
메시아의 오심을 다루고 있는 다음의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메시아를 말하는 구절이면 ‘고난’, 영광의 왕을 묘사하는 구절이면 ‘영광’이라고 구절 뒤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1.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다.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단7:14). ()
2. 그의 정권의 확장 and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사9:7). ()
3.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찢었나이다(시 22:16). ()
4. 네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겠고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볼 것이며... 오히려 거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강들과 시내들이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 안에서는 노 젓는 큰 배가 다니지 못하며 화려한 큰 배가 그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사33:17-22). ()
5.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사52:14). ()
6.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53:3). ()
7.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렘23:5) ()
8.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단9:26). ()
9.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를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사53:12). ()
10.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사40:10). ()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것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의 경우 메시아의 강림은 멀리 보이는 하나의 산봉우리와 같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2,000년의 골짜기를 두고 두 개의 산봉우리가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읽어

보고 그것이 초림에 해당되는 말씀이면 끝이다 ‘초림’이라 쓰고 재림에 해당되는 말씀이면 ‘재림’이라고 쓰기 바랍니다.



1. 그러나 너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5:2). ()
2.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사 9:6-7). ()
3.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 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포고하게 하려 하심이요, 주의 받아 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사61:1-2; 눅4:18-19와 비교) ()
4.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그가 이교도들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슌9:9-10; 마21:1-7과 비교). ()
5.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에 큰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돋아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사40:3-5; 막1:3과 비교).
()

6.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使者)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主)가 갑자기 자신의 상천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물이 옛날과 이전 시대에 주에게 기쁨이었던 것같이 그렇게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니 곧 내가 마법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과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압제하며 타국인을 외면하여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말3:1-2; 4:5; 막1:2; 마17:3, 10-13과 비교). ()
7.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아굽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눅 1:31-33). ()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 성도도 어려운데 구약 시대 성도가 이 말씀들을 읽었다면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두 번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찾아보고 초림이면 숫자 1을 쓰고 재림이면 숫자 2를 쓰기 바랍니다.

	구 절	답		구 절	답
1	딤후1:15		11	약5:8	
2	요3:17		12	벧후3:4	
3	요14:3		13	요12:47	
4	마16:27		14	요18:37	
5	눅19:10		15	계22:20	
6	마24:30		16	요1:14	
7	요일4:2; 5:20		17	딤후2:13	
8	행1:11		18	갈4:4	
9	계19:11-16		19	계1:7	
10	요10:10		20	요6:38, 41, 42,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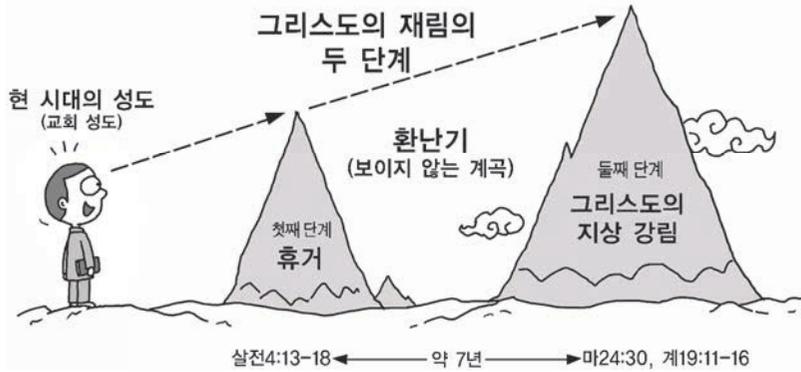
이 성경 말씀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음 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초림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적 예언이다.
이미 일어났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과거에 발생했다.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요일4:2).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요14:3).
십자가	왕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관이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마1:21).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계19:16).
당신은 어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그분을 심판자로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다(요3:17).	사람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유14-15).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했다(요1:11).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맞을 것이다(슌12:10; 마23:39; 롬11:25-27).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눅2:7).	정복자로 오실 것이다(계19:11-16).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마21:1-5).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권능 있게 오실 것이다(계19:11).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셨다(롬5:1; 엡2:13-19).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오실 것이다(사9:6-7; 슌9:10).
초림 당시 정권은 사람의 손에 있었다(헤롯 대왕, 로마 제국 등).	재림 때에 정권이 그리스도의 손과 어깨에 놓일 것이다(사9:6-7).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마27:20-25).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죽이실 것이다(살후1:7-10).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전후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또 구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소위 휴거라 불리는 공중 강림이고 둘째는 7년 환난 뒤에 있을 지상 강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림과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표는 재림의 두 양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휴 거	지상 강림
시기	환난 전(계3:10)	환난 후(마24:29-30)
속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일어난다(고전15:52).	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일어난다(마24:27; 계1:7).
표적	표적은 없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 추수 감사절같이 명절이 가까웠음을 보여 주는 표적이 거의 없는 일반 휴일과 비슷함.	많은 표적들(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8절에서 이 표적들에 대해 언급하셨다. 예: 크리스마스같이 표적이 많은 휴일과 비슷함.
그리스도를 보는지 여부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요일3:2).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계 1:7). 이 광경을 놓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마24:24-27).
장소	공중(살전4:17)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오지 않는다.	지상(슌14:4; 행1:11)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다.
신자와 불신자	믿는 이들은 하늘로 갈 것이고(에녹처럼), 불신자들은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살전4:13-18).	믿는 이들은 땅에 남아 있을 것이고(노아처럼), 불신자들은 심판에 넘겨질 것이다(눅17:34-37).
목적	신부인 교회를 영접하는 것(요14:3)	자신의 왕국을 받는 것(눅19:12)

휴거와 지상 재림은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들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크리스마스(12월 말)가 머지않았음을 알리며 또 동시에 추수 감사절(11월 말)이 더 가까이 왔음을 알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지상 재림의 표적들을 볼 때 휴거가 더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약 7년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 요약

지금까지 우리는 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의도를 시대를 따라 펼쳐 나가시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Dispensation’이라는 말은 원래 ‘한 집안을 다스리는 규칙’을 뜻하며 여기서 경영 체제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신학에서도 이 말은 경륜 혹은 경영 체제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세대주의자든 언약주의자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경영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시대를 통해 여러 가지로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경영 체제는 그 체제뿐만 아니라 그 체제가 지속된 시간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 등은 ‘Dispensation’이 어떤 기간을 뜻한다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그 결과 영미권에서는 흔히 과거의 구약 시대를 ‘Jewish dispensation’, 지금의 교회 시대를 ‘Christian dispens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체제 혹은 시대’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체제 혹은 시대’를 뜻합니다. 한국의 신학계에서는 ‘Dispensation’을 주로 시대적 개념으로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를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원래는 경륜주의라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언약주의와 더불어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양대 정통 신학 체계입니다. 침례교가 강한 미국에서는 근본주의적인 대부분의 신학교가 세대주의 신학 체계를 가르칩니다. 반면에 언약주의는 장로교회에서 인정받는 신학 체계로 칼빈주의 혹은 ‘칼빈식 성경 해석 체계’를 뜻합니다. 한국에는 처음에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굳혔으므로 언약주의 세력이 강했지만 원래 초창기에는 한국의 장로교회들도 대개 세대주의적 예언 해석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통 언약주의를 선호하는 신학자들이 늘면서 이제는 칼빈 신학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세대주의를 ‘준 이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이단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세대주의자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믿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비난을 받아 왔지만 실제로 건전한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있지 않은 이단 교리입니다. 어느 체계에서나 극단적인 요소나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 체계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결코 이것은 세대주의를

대표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대주의 체계에서는 반드시 일곱 개의 세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계시의 발전에 따라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변했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대의 개수는 결코 세대주의의 특징이 아니며 성경을 연구하는 개개인의 선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세대주의는 언약주의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언약주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천주교회의 어거스틴 신학에서 나와 칼빈을 거쳐 정착된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칼빈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에 불과했고 그래서 전 유럽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돌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그 누구도 상상하거나 심지어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나온 성경 주석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 해석에 따라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즐기치게 되었고 때가 오자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과 같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머지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모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17세기 칼빈 시대의 언약주의라는 틀에 박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영적으로 보려는 시도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을 것을 강조하는 세대주의는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힘을 키워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살다 보면 구분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어떤 것들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바로 나누어 보면 이 시대에게 주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취해서 이 시대에 적용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구약 성경을 QT용으로 읽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주어진 대상과 그 말씀의 1차적 의미, 즉 문자적/문법적/역사적 의미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영적으로 내 생활에만 적용하려는 QT식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1차적인 뜻을 모른 채 내게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람마다 같은 구절을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강해해도 목사마다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동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는 1차적으로 단 하나의 뜻만 있습니다.

끝으로 세대주의가 배격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온 세상에 보여 준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마귀의 증오는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마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일으켜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로 절정에 다다랐고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들에게 영원토록 조건 없이 주신 그들만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학 체계는 세대주의밖에 없습니다. 다른 체계는 항상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천주교 신학과 유사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중동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씨로서 구약의 예언을 이를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임을 굳게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정서가 고양되고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정부나 민족이나 신학 체계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은 그 민족이 창건된 이래로 전혀 없었던 대규모의 환난이 될 것입니다(렘30:7; 단12:1; 마24:20-22). 이와 같은 성경의 예언을 우리의 주변 상황과 신학 체계에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권리를 옹호하는 세대주의 신학 체계가 어떤 비난을 받을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신학 체계입니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정형화된 신학 체계가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들을 하나의 간결한 형태로 모아 놓은 성경 그대로의 신학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100% 옳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구약에 기록된 참 이스라엘을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12:3).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르게 읽고 시대와 대상을 구별하여 바르게 해석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주님께서 화평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갈 6:16).

만물의 회복

Ω

오메가
시대들의 시대



새 예루살렘

야곱의 사다리

창28:10-15; 요1:51



천년왕국의 땅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도시의 빛 가운데
데서 걸음(계21:24)

새 땅

땅의 정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행3:19-21).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불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벧후3:12-13).

창세기는 죄와 사람의 타락을 보여 주며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는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열리며 이 기간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창12:2-3; 창15:18-21; 시2; 사11; 겔40-48; 속14 등)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때에 팔레스타인 땅은 지구의 중심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인 히브리 민족은 민족들 중에서 으뜸가는 민족이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기간을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말씀하셨다(마 19:28). 이 기간이 끝나고 신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옛 땅에서 성취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며(벧후3:10-13; 계21:1)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가오는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경 연대기

본 연대기는 존스 박사가 저술한 「구약 성경의 연대기」(*The Chronology of the Old Testament*, F. N. Jones, March 2005, New Leaf Press Edition, Master Book)에서 대부분 인용하였다.

- AD(Anno Domini): 주후 525년 스키티아 출신의 연대사가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저술한 「부활제의 서(書)」에서 그리스도의 기원(Anno Domini)이 비롯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BC 4년에 출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므로 AD는 보통 주후로 표기된다.
- AM(Anno Mundi): 창조가 시작된 해, 즉 아담의 출생을 기원으로 계산한 연도이다.
- BC(Before Christ): AD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이전을 뜻한다. BC는 보통 주전으로 표기된다.
- Co-rer: 공동 왕, 어떤 이유에 의해 두 왕이 공동으로 다스릴 경우에 쓰인다.
- Pro-rer: 대리 왕, 새 왕이 나이가 어린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다스릴 경우에 쓰인다.
- Sole-rer: 유일 왕, 어떤 왕이 공동 왕이나 대리 왕 이후에 홀로 다스릴 경우에 쓰인다.

AM	BC	사 건	AM	BC	사 건
	4004	아담과 이브, 우주의 창조	1757	2247	벨렉 출생
1	4003	가인 출생	1787	2217	르우 출생
129	3875	가인이 아벨을 죽임	1819	2185	스룩 출생
130	3874	셋 출생	1822	2182	니므롯의 왕국 시작
235	3769	에노스 출생	1849	2155	나홀 출생
325	3679	게난 출생	1878	2126	데라 출생
395	3609	마할랄레엘 출생	1996	2008	벨렉 사망
460	3544	야벳 출생	1997	2007	나홀 사망
622	3382	에녹 출생	2006	1998	노아 사망
687	3317	므두셀라 출생	2008	1996	아브라함 출생
874	3130	라멕 출생	2018	1986	사라 출생
930	3074	아담 사망	2026	1978	르우 사망
987	3017	에녹 승천	2049	1955	스룩 사망
1042	2962	셋 사망	2083	1921	데라 사망
1056	2948	노아 출생	2083	1921	아브라함 우르 출발(떠도는 일 시작)
1140	2864	에노스 사망	2094	1910	이스마엘 출생
1235	2769	게난 사망	2096	1908	아르박삿 사망
1290	2714	마할랄레엘 사망	2107	1897	할레 시작
1422	2582	야벳 사망	2107	1897	이삭의 약속
1556	2448	야벳 출생	2108	1896	이삭 출생
1558	2446	셈 출생	2113	1891	이삭의 젖을 땀
1651	2353	라멕 사망	2126	1878	살라 사망
1656	2348	므두셀라 사망	2141	1863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침
1656	2348	노아의 대홍수	2144	1860	사라 사망
1658	2346	아르박삿 출생	2148	1856	이삭과 리브가 결혼
1693	2311	살라 출생	2158	1846	셈 사망
1723	2281	에벨 출생	2168	1836	야곱과 에서 출생

AM	BC	사 건
2183	1821	아브라함 사망
2187	1817	에벨 사망
2208	1796	에서의 첫째 결혼
2231	1773	이스마엘 사망
2245	1759	야곱이 라반에게 도피함
2245	1759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함
2246	1758	르우벤 출생(레아)
2247	1757	시므온 출생(레아)
2248	1756	레위 출생(레아)
2249	1755	유다 출생(레아)
2249	1755	라헬이 야곱에게 빌하를 줌
2249	1755	단 출생(빌하)
2250	1754	납달리 출생(빌하)
2250	1754	레아가 야곱에게 실바를 줌
2251	1753	갓 출생(실바)
2252	1752	아셀 출생(실바)
2252	1752	잇사갈 출생(레아)
2253	1751	스불론 출생(레아)
2254	1750	디나 출생(레아)
2259	1745	요셉 출생(라헬)
2265	1739	베냐민 출생(라헬 사망)
2265	1739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남
2272	1732	디나의 강간 사건
2276	1728	요셉이 종으로 팔림
2286	1718	요셉이 두 이집트 관리의 꿈을 해석함
2288	1716	이삭 사망
2289	1715	요셉의 승진(30세)
2296	1708	7년 흉년의 마감
2297	1707	족장들의 1차 이집트 방문
2298	1706	야곱과 족장들의 이집트 거주
2315	1689	야곱 사망
2369	1635	요셉 사망
2433	1571	모세 출생
2473	1531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주함
2475	1529	갈렙 출생
2513	1491	이집트 탈출(율법 수여)
2514	1490	성막을 세움
2552	1452	이스라엘이 가데스로 되돌아옴
2552	1452	미리암과 아론 사망
2552	1452	헤스본 왕 시혼 정복
2552	1452	모세 사망(여호수아 새 지도자)
2553	1451	이스라엘 요르단 통과
2559	1445	가나안 족속들과의 7년 전쟁 완료
2559	1445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배분 시작
2560	1444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김
2560	1444	마지막 7지파에게 가나안 땅 배분 완료
2580	1424	여호수아 사망
2599	1405	미가의 제사장(삿17-18)
2601	1403	레위 사람 첩 사건(삿19-21)
2604	1400	구산리사다임의 압제
2612	1392	웃니엘의 구출
2644	1360	에글론의 압제

AM	BC	사 건
2662	1342	에훗의 구출
2724	1280	아빈의 압제
2744	1260	삼갈 재판관
2744	1260	바락과 드보라의 구출
2764	1240	미디안의 압제
2771	1233	기드온의 구출
2804	1200	아비멜렉의 권력 찬탈
2807	1197	돌라 재판관
2830	1174	야일 재판관
2834	1170	암몬의 압제
2842	1162	엘리 재판관
2852	1152	압다의 구출
2858	1146	입산 재판관
2863	1141	블레셋의 40년 통치 시작
2865	1139	엘론 재판관
2875	1129	압돈 재판관
2882	1122	블레셋이 연약계를 빼앗음(엘리 사망)
2883	1121	삼손 재판관
2883	1121	연약 계가 기럃여아림에 옴
2903	1101	삼손의 다곤 신전 파괴
2903	1101	사무엘의 40년 블레셋 통치 종료
2909	1095	사울의 등극
2909	1095	사울이 암몬을 패주시킴
2911	1093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
2919	1085	다윗 출생
2934	1070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
2937	1067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
2939	1065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피함
2939	1065	다윗이 가드 등으로 피신
2944	1060	사무엘 사망
2945	1059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살려 줌
2946	1058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름
2948	1056	사울과 요나단 사망
2949	1055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됨
2951	1053	다윗과 이스보셋의 싸움
2956	1048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됨
2956	1048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함
2957	1047	다윗이 블레셋을 패주시킴
2957	1047	연약 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
2964	1040	다윗이 브비보셋을 환대함
2967	1037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2968	1036	솔로몬 출생
2969	1035	암논이 다발을 강간함
2977	1027	압살롬의 반역
2988	1016	르호보암 출생
2989	1015	아도니아의 권력 찬탈
2989	1015	솔로몬 유다의 Pro-rex
2989	1015	다윗 사망(솔로몬 Sole-rex)
2992	1012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놓음
3000	1004	솔로몬 성전 봉헌
3029	975	르호보암 등극
3029	975	여로보암의 주도로 왕국이 분열됨

AM	BC	사 건
3033	971	시삭의 침공
3046	958	아비아 유다 왕 등극
3048	956	아사 유다 왕 등극
3050	954	나담 이스라엘 왕 등극
3051	953	비아사 이스라엘 왕 등극
3054	950	여호사밧 출생
3074	930	엘라 이스라엘 왕 등극
3075	929	시므리의 7일 통치
3075	929	오므리 이스라엘 왕 추대
3075	929	디브니와 오므리의 전쟁
3079	925	유다의 여호람 출생
3079	925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디브니 사망)
3086	918	아합 이스라엘 왕 등극
3087	917	아사의 발에 병이 생김
3090	914	여호사밧 유다 왕 등극
3096	908	유다의 아하시야 출생
3098	906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이 됨
3106	898	여호람 유다의 Pro-rex
3107	897	아하시야 이스라엘 왕 등극
3107	897	요람 이스라엘 왕 등극
3107	897	엘리아 승천
3111	893	여호람 유다의 Co-rex
3115	889	여호람 유다의 Sole-rex
3115	889	엘리아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씀
3117	887	아하시야 유다의 Pro-rex
3118	886	아하시야 유다의 Sole-rex
3118	886	예후 이스라엘 왕 등극
3118	886	아달라의 유다 왕국 찬탈
3125	879	요아스 유다 왕 등극
3141	863	유다의 아마샤 출생
3147	857	여호아하스 이스라엘 왕 등극
3147	857	성전이 아직 보수되지 않음
3161	843	여호아스 이스라엘의 Pro-rex
3164	840	여호아스 이스라엘의 Sole-rex
3165	839	아마샤 유다 왕 등극
3167	837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Pro-rex
3177	827	유다의 웃시야 출생
3179	825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Sole-rex
3194	810	웃시야 유다 왕 등극
3218	786	대지진(암1:1)
3220	784	유다의 요담 출생
3220	784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망
3220	784	사가랴의 이스라엘 통치
3232	772	살롬의 이스라엘 통치(한 달)
3232	772	므나헴 이스라엘 왕 등극
3241	763	유다의 아하스 출생
3243	761	브가야 이스라엘 왕 등극
3245	759	베가 이스라엘 왕 등극
3246	758	요담 유다의 Sole-rex
3252	752	히스기야 출생
3262	742	아하스 유다 왕 등극
3265	739	베가 사망

AM	BC	사 건
3274	730	호세아 이스라엘 왕 등극
3278	726	히스기야 유다 왕 등극
3281	723	살만예셀 사마리아 포위
3283	721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정복(사르곤 즉위)
3291	713	산헤립(사르곤의 총사령관)의 1차 침공
3291	713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
3291	713	사르곤의 아스돗 포위(사20:1)
3292	712	므로달발라단의 사절단
3293	711	사르곤에게 아스돗이 넘어감
3295	709	산헤립(사르곤의 Co-rex)의 2차 침공
3295	709	천사가 아시리아의 185,000명을 죽임
3295	709	유다의 므낫세 출생
3295	709	희년 주기의 15번째 해 시작(사37:30)
3307	697	므낫세 유다 왕 등극
3355	649	유다의 요시아 출생
3362	642	아몬 유다 왕 등극
3364	640	요시아 유다 왕 등극
3370	634	유다의 여호야김 출생
3371	633	요시아의 회심
3372	632	유다의 여호아하스 출생
3375	629	요시아의 1차 개혁
3376	628	에레미야 대언 시작
3381	623	요시아의 성전 보수(울림 발견)
3386	618	유다의 시드기야 출생
3388	616	여고니야(여호야김) 출생
3392	612	바빌론의 니느웨 정복
3394	610	바빌론의 하란 정복
3395	609	요시아가 여고니야에게 기름을 부음
3395	609	파라오느고가 요시아를 죽임
3395	609	아시리아의 반격 실패
3395	609	여호아하스 유다 왕 등극
3395	609	여호야김 유다 왕 등극
3398	606	느부갓네살(Co-rex)의 유다 침공
3398	606	1차 바빌론 포로 생활(단1)
3399	605	갈그미스 전투: 느고 사망
3399	605	느부갓네살의 등극
3400	604	느부갓네살(Sole-rex)의 첫째 해
3400	604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 해석
3406	598	소규모 포로들(왕하24:2)
3406	598	여고니야 유다 왕 등극
3407	597	2차 바빌론 포로 생활
3407	597	시드기야 유다 왕 등극
3411	593	에스겔 대언 시작
3411	593	시드기야 바빌론 방문
3412	592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남
3416	588	예루살렘 최종 포위 시작
3416	588	파라오의 개입
3418	586	바빌론 사람들의 약탈
3418	586	3차 바빌론 포로 생활
3422	582	소규모 포로들
3443	561	바빌론에서 여고니야가 석방됨
3465	539	매대 사람 다리오의 바빌론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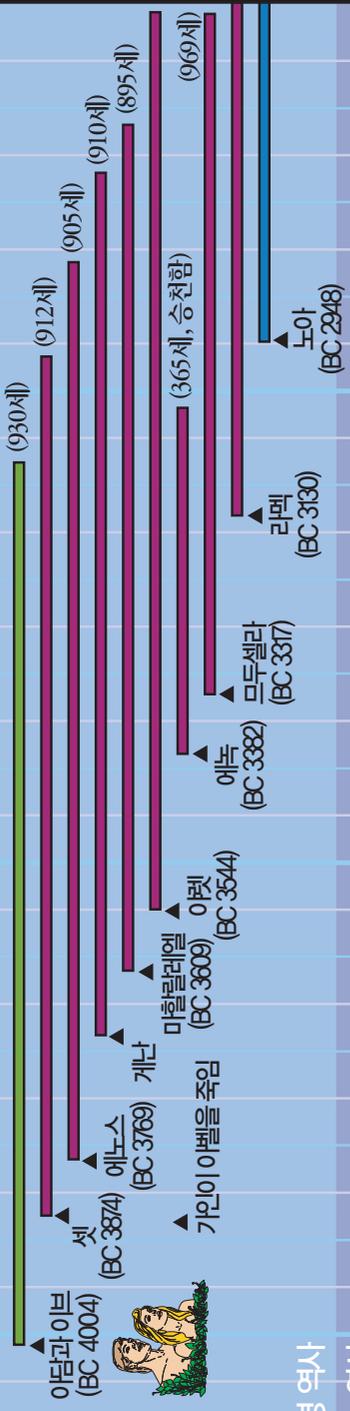
AM	BC	사 건
3468	536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선포
3468	536	스플라벤의 인도로 유대인 귀환(1차)
3469	535	둘째 성전의 기초를 놓음
3484	520	성전 재건 시작
3485	519	아하수에로가 와스디와 이혼함
3488	516	둘째 성전 완공
3489	515	에스터가 왕비가 됨
3494	510	하만의 유대인 멸절 음모
3495	509	왕의 불면증
3495	509	하만의 교수형
3495	509	모르드개의 승진
3496	508	모르드개와 에스터의 유대인 구출
3537	457	성전 미화 법령 선포(*)
3537	457	에스라의 예루살렘 도착
3537	457	유대인들이 이방인 아내들을 버림
3549	446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의 상태를 인지함
3550	445	아닥사사다의 칙령(제20년)
3550	445	다니엘의 70이레 시작
3550	445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옴
3550	445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봉헌
3562	433	느헤미아의 페르시아 귀환
3563	432	말라기(구약 성경의 끝)
3673	331	알렉산더 페르시아 정복
3681	323	알렉산더 사망
3833	171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 훼손
3836	168	안티오쿠스가 돼지를 제단에 드림
3836	168	마카비 반란
3839	165	성전 예배 복원
3941	63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취함
3964	40	로마의 헤롯 대왕 임명
3967	37	헤롯이 예루살렘을 취함
3984	20	헤롯의 성전 복원 시작
4000	4	그리스도와 침례자 요한 출생
4000	4	헤롯 사망
4004	AD 1	기독교 기원(AD) 시작
4012	9	예수님이 12세에 성전을 방문함
4015	12	티베리우스(Co-rex)의 첫째 해
4017	14	아우구스투스사망(티베리우스 Sole-rex)

AM	AD	사 건
4029	26	빌라도의 유대 총독 임명
4029	26	침례자 요한의 침례
4030	27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4032	29	헤롯 안디바가 침례자 요한을 죽임
4032	29	변화산 사건
4032	29	장막절(요7)
4033	30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4033	30	스태반의 순교
4035	32	바울의 회심
4040	37	칼리굴라 로마 황제 등극
4042	39	헤롯 안디바의 골 지방 유배
4044	41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 등극
4044	41	고넬로 회심(행15)
4047	44	야고보의 순교(행12)
4047	44	헤롯 아그립바의 사망(행12)
4048	45	1차 선교 여행(행13)
4049	46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아 맞음(행14)
4053	50	예루살렘 공회(행15): 할례 문제
4055	52	벨릭스 총독 부임
4056	53	2차 선교 여행(행15)
4057	54	네로 로마 황제 등극
4059	56	3차 선교 여행(행18)
4062	59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힘
4062	59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섬
4063	60	베스도 총독 부임
4064	61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 섬
4065	62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
4067	64	바울이 석방됨
4067	64	네로의 기독교 박해
4070	67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4073	70	티투스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4082	79	티투스 로마 황제 등극
4084	81	도미티안 로마 황제 등극
4099	96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됨
4099	96	네르바 로마 황제 등극
4099	96	사도 요한의 석방
4101	98	트라얀 로마 황제 등극

(*) 성전 미화 법령 선포부터 말라기까지의 연대는 학자들의 견해 차이로 인해 존스의 연대보다 9-10년 늦음

성경의 연대 1

(대략적인 연대임)



성경 역사
 세속 역사
 (없음)

◎ 창조 시간

- 지금과 동일한 24시간 하루의 6일 창조
-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
- 첫째 날: 하늘과 지구, 빛과 어둠
- 둘째 날: 공창
- 셋째 날: 땅과 바다, 과일 나무, 채소
- 넷째 날: 해와 달
- 다섯째 날: 물고기, 고래, 새
- 여섯째 날: 가축, 짐승, 사람

◎ 창조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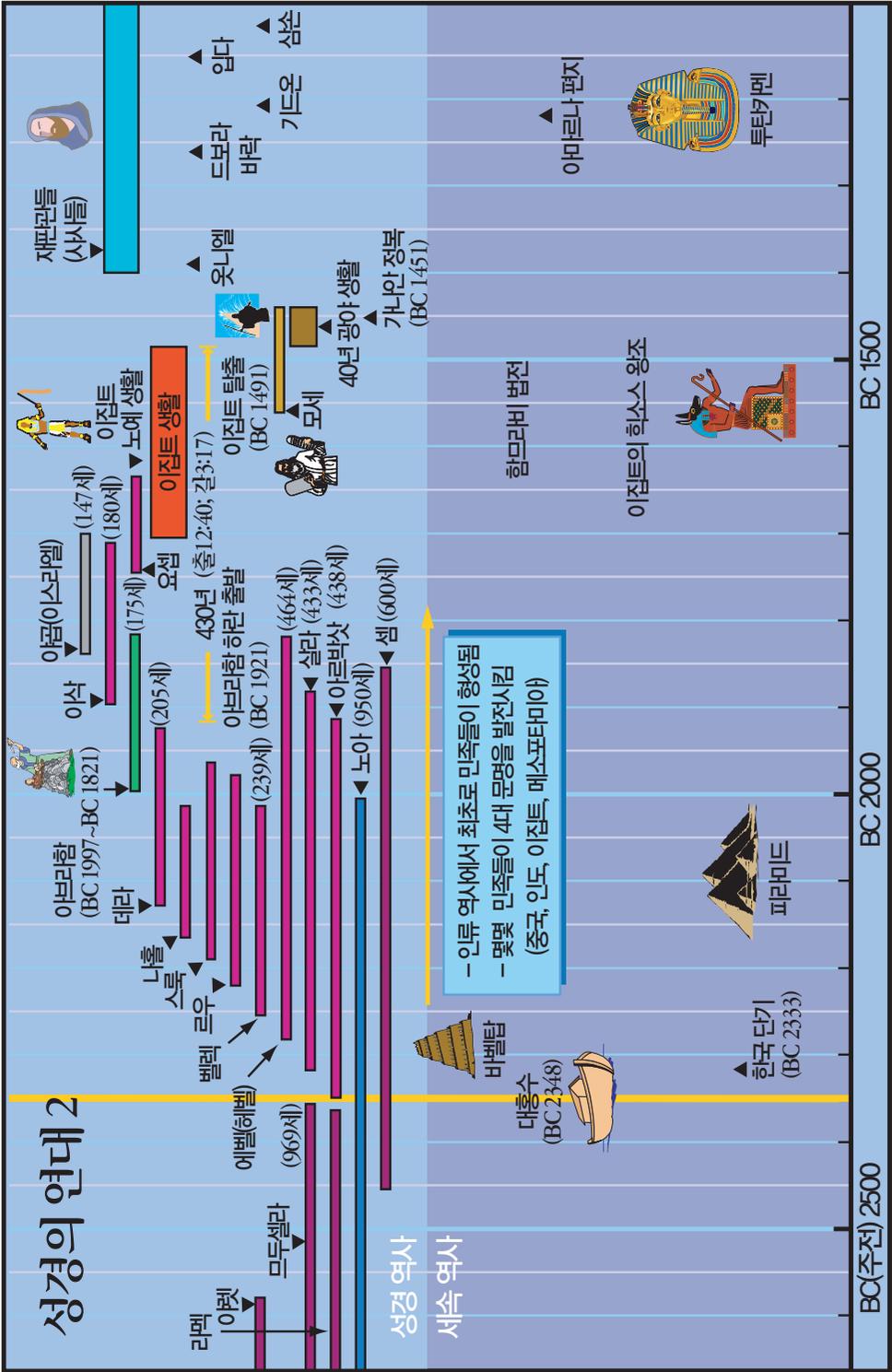
- 어셔(J. Ussher): BC 4004년
- 존즈(F. Jones): BC 4004년
- 벌링거(E. W. Bullinger): BC 4004년
- 클라센(F. Klassen): BC 3975년
- 모리스(H. Morris): BC 4000년경
- 무어맨(J. Mooreman): BC 4000년경

BC(주전) 4000

BC 3500

BC 3000

성경의 연대 2



성경의 연대 3

재판관(사사)들



사울

재판관들



다윗 출생

(BC 1085)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왕국

분단 왕국

유다 왕국



왕들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성전 재건축 시작

(BC 535)

밀라기

(BC 432)

느헤미야

(BC 445)

(다니엘의 700레 시작)

에스라

(BC 457)

스룹바벨과 포로들 귀환

(BC 536)

에레미야

대언 시작

(BC 628)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구원의 원리

♣ 필요성 ♣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흠에서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 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0).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방해물 ♣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 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는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 5:3; 롬3:10).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임했고(롬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합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의 예화를 잘 읽어 보시면 죄와 죄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죄는 논리적이지 않다: 수영을 못하는 전갈이 강을 건너기 위해 거북이에게 다가가서 등에 태워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미쳤나?”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수영하는 동안 네가 나를 쏘면 나는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러자 전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쏘 리가 있나? 네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게 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논리적인 설득에 거북이는 “맞아. 그렇군.” 하고는 등에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간에 왔을 때 전갈은 강한 침으로 거북이를 쏘아 버렸고 둘은 같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거북이가 가라앉으면서 전갈에게 힘없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쏘지?” 그러자 전갈은 다음과 같이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논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것이 내 본성이거든.”

(2) 죄인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다: 어느 목사가 클래스고우에서 열심히 옥외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의 결론을 내릴 즈음에 어떤 불신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믿지 않소. 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소이다.” 그러자 옆에 검은 안경을 낀 한 눈먼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근에 클라이드강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이 눈먼 사람이 말 한 바가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3) 죄인은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 출랑거리는 한 청년이 목사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 짐을 지고 다닌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죄 짐은 얼마나 됩니까? 10킬로그램쯤 됩니까? 아니면 80킬로그램쯤 됩니까?” 그러자 목사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 위예다 400킬로그램짜리 짐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까요?” “아뇨, 죽은 사람은 무게를 못 느끼지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죄의 무게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도 없으며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계획 ♣

철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병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존재만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4:12).

♣ 확신 ♣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조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요14:6).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6:23).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의 하나님이라 해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무엇인가를 조금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거저 주십니다. 공기, 물, 햇빛 등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 거저 주십니다. 부자나 학자나 귀족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또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너무나 고귀하고

비싼 것이어서 사람이 값을 치르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거저 얻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 초청 ♣

인생은 마치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벧전1:23).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하심이라(요3:16-17).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4:12-13).

구원의 원리

펜이신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흠에서 그냥 생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참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 불 자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0).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인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창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뒷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5:3; 롭3:10).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왔고(롬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속에서 자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합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원

실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병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마리아, 마더 테레사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4:12).

죄인

사람의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탄생을 통해 죄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어 단 한 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시키셨습니다(마1:23; 고후5:21; 히9:26).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지옥 불의 심판을 다 담당한 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가 햇빛같이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한 모든 것을 가져 주십니다. 이런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역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롬5: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엡2:8,9).

확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조 주이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요14:6).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초청

인생은 마치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벧전1:23).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 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יהא ארץ
קיימ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ההום ורוח אלהים כנחפה

히브리어 구약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 원본)**

BIBLOS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υιου
Δαβιδ, υιου 'Α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 성경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 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 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
위가 완전히 보존됨**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1611년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넷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회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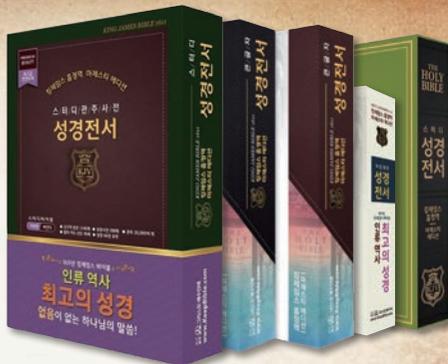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뵘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